

〈파생상품 투자공포〉

2000km 떨어진 ‘H지수 강진’에… 韓 ‘파생포비아’ 쓰나미

격랑의 ELS

50대 초반의 자영업자 김광중 씨는 몇 년 전 코스피200 지수와 S&P500 지수, 홍콩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추가연계증권(ELS) 상품에 총 1억 원을 투자했다. 3년(만기) 뒤 세 지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홍콩H지수가 말썽이다. 투자 당시 1만1000선을 돌파했던 홍콩H지수는 최근 5700선까지 주저앉았다. 김 씨는 홍콩H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조기 상환 조건에 번번이 미달하면서 자금이 묶인 데다 만기에 ‘손실 폭탄’을 안게 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ELS 만기는 보통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 시점 대비 40~50% 이상 떨어지면 ‘원금 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들 사이에 ‘파생상품 포비아(phobia, 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내년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는 홍콩H지수 ELS 때문이다. 실물 경제와 주가가 파생상품을 매개로 연결되면서 2000km

경제·증시하락에 파생상품 급락 K개미 위협… ELS발행도 급감 2년 전 가입 상품 회복 못하면 내년 만기 때 대규모 손실 발생

떨어진 홍콩증시가 국내 투자자의 통장 잔고를 위협하게 된 셈이다. 그 영향으로 ELS 발행도 급감하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1월 ELS 발행액은 2조7755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월별 최고치를 기록한 4월(3조 6778억 원)에 비하면 25%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연초 1조6000억 원대였던 ELS 발행액은 4월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줄어들어 2조 원대를 유지 중이다. 8월에는 2조1117억 원까지 줄기도 했다.

반짝인기를 끌었던 ELS 시장이 냉각된 건 ELS 상품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초자산 H지수가 급락해서다. H지수는 올해에만 16% 가까이 하락했고, 2021년에 비해서는 반 토막 난 수준이다. 1일 H



지수는 역사적 저점 수준인 5761.73을 기록했다. H지수가 5000선까지 떨어진 건 2006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통상 3년 만기인 ELS 특성상 2021년에 가입한 H지수 연계 상품이 가입 당시 가격의 60~70%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주가지수가 지금보다 30%가량 올라야 하는 수준이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관련 ELS의 미상환 잔액은 약 15조 원”이라며 “이 중 1월에서 7월까지 만

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손실을 확정하면서 만기 상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약 11조 원”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홍콩 H지수 ELS 발행량은 감소 추세다. 9월 5137억 원 발행된 H지수 ELS는 10월 4654억 원, 11월 4023억 원으로 줄었다. 두 달 사이 발행액이 22%가량 줄어든 셈이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와 원유 가격이나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은 판매사

가 제시하는 조건에 배팅하는 일종의 ‘머니 게임’ 성격이 짙다. 약속한 기간 안에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당시의 9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5% 수익률을 약속하는 식이다. 보통 만기는 2~3년이지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기회를 준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ELS와 DLS는 인기를 끌었다. 수요가 늘어나면 서 상품도 다채로워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H지수, 닛케이 지수 등이 ELS 기초자산으로 활용됐다. 기초자산과 조건의 조합에 따라 상품 종류는 수백가지도 넘는다.

문제는 기초자산 가격이 흔들릴 때다. H지수 연계 ELS가 대표적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파생상품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내 한 증권사 PB센터장은 “원금 비보장형 ELS와 DLS는 보통 중위험 상품으로 소개되는데 일부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에 늘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제2의 펀드사태 될라… 당국,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ELS 손실로 대규모 금융분쟁 예고 정부, 불완전판매 기준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추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H지수 ELS 손실 우려에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때 판매

기관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한 배상비용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용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해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되면 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

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파생결합펀드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용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용을 내놓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H지수 ELS의

경우 재가입자와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배상비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DLF 배상비용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용이 정해졌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녹취 및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재가입율이 높고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형인 데다 워낙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 불완전판매 입증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떠나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권유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기한을 지난 1일로 예정했다가 이번 주까지로 연장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지연 기자 sjy@



THE HYUNDAI

프레드 사무엘의 삶의 서사시가 담긴 경이로운 여정

아시아 최초, 하이 주얼리 크리에이터 매종 프레드의 특별 전시.
프레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주얼리와 오브제,
미공개 아카이브를 전시한 아홉 개의 룸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세요.

JEWELLER CREATOR SINCE 1936
하이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 전시

2023년 11월 11일 - 12월 25일
ALT.1 더현대 서울 6층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연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몰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성닷컴 | 현대&C | 지누스 | 현대렌탈캐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인이책미술관

사채 전단에 ‘등록업체’ ‘공정위’… “괜찮아” 악마의 눈속임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3개월 활동해 보니

11월29일 오전 10시께 차도 옆으로 미용실, 마트, 카페,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등이쪽 이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거리에 A 불법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16장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다. 명함 크기의 전단은 뿌린 지 얼마되지 않은 듯 깨끗하고 뽀뽀했다. 전단에 쓰여 있는 문구는 “어떤 조건이라도 맞춰드리겠습니다”. 가게 앞 뿐만 아니라 인도 옆 주·정차된 자동차 사이, 가게 문틈, 마트 앞 쇼핑카트 사이 등 청소하기 어려운 구석에도 틈틈이 박혀 있었다. 파출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무 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요즘엔 잘 없는데…시장에나 가야 있지.” 일산에 거주한 지 20년이 넘는 주부 조모씨(51)는 평소에 불법대부업 전단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관심이 없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기자 역시 ‘우리동네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바닥에 놓인 대출 전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자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했다. 우리동네지킴이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활동이다. 100명 모집에 활동을 시작한 지킴이는 98명, 불법대부업 광고물 신고 등 활동에 실제 참여한 사

불법사채, 등록대부업체로 위장 도로변 상가·빌라에 광고 살포 지자체 감독 전통시장엔 드물어 SNS 검색만 해도 수십만개 노출

람은 74명이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이 라면 누구나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 선발된다. ‘우리 동네를 지키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신청을 한 기자는 선발된 이후 20장짜리 교육 자료와 불법사금융 사례, 위험성을 알리는 온라인 교육 2개를 이수한 이후 본격적인 지킴이 활동에 나섰다. 석 달간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며 발견해야 할 거리와 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자가 신고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물은 20개였다.

불법대부업 광고는 ‘도로 옆 상가’에서 많이 보였다. 기자가 신고한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 18개 중 16개가 차도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근처에서 발견됐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살포가 쉬운 도로변이 타깃이었다. 전통시장에서는 불법대부 광고물을 보기 힘들었다. 영등포동시장과 일산시장·남대문시장·영등포전통시장에서는 한 장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시장 상인이 일수에 많이 노출되다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시 한 빌라(왼쪽 사진부터)와 경기도 고양시 상가·약국 앞에 불법 대부업체 명함(노랑 원)이 뿌려져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요즘에는 상가나 빌라 앞에 많다”고 설명했다.

활동 기간 발견한 전단 18개 중 14개에는 ‘공식등록업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중 3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글귀와 로고가, 1개에는 태극마크까지 있었다. 과거 OK금융 산하 대부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마스크

트캐릭터 ‘무과장’이 그려져 있는 전단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4개 모두 미등록 대부업자 번호였다. 등록 대부업체로 오인하게 하려는 불법대부업자의 ‘꼼수’다.

불법사금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누구나 언제든지, 신용조회 없이 당일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불법대부업에 손을 뻗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이

미 갖춰져 있었다. SNS에도 검색만 하면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게시물이 수십만 개 나왔다.

서금원 관계자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평소에는 불법사금융 광고가 눈에 안 들어온다”면서 “돈이 필요한 순간 불법대부업에 노출되는 것으로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사진 유하영 기자 haha@

인터뷰

서민금융진흥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서민금융기관도 조심… 사칭 많아요”

지킴이 선발후 사채 번호 신고 늘어 서금원 사칭 피해자 돕다 아이디어

“최소한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킴이들이 불법대부 광고를 신고해 피해를 막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을 주변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지와 만난 강우신(사진·가명)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지킴이)’ 기획자는 활동 취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리동네지킴이는 서금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 중 하나다. 올해 처음으로 1기를 모집했다. 전국 19세 이상 신청자 중 98명을 무작위로 추첨 선발했다. 이 중 약 76%에 달하는 74명이 활동했다. 이들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석 달간 온·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서민금융 사칭 광고를 신고했다.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 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킴이 74명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접수 건 중 약 44%가 실제 서금원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로 이어졌다. 지킴이 선발 후 월평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접수는 30% 정도 증가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



강우신(가명) 씨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연락과 협박 등의 피해를 우려해 얼굴과 실명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만난 경험이 기획의 시발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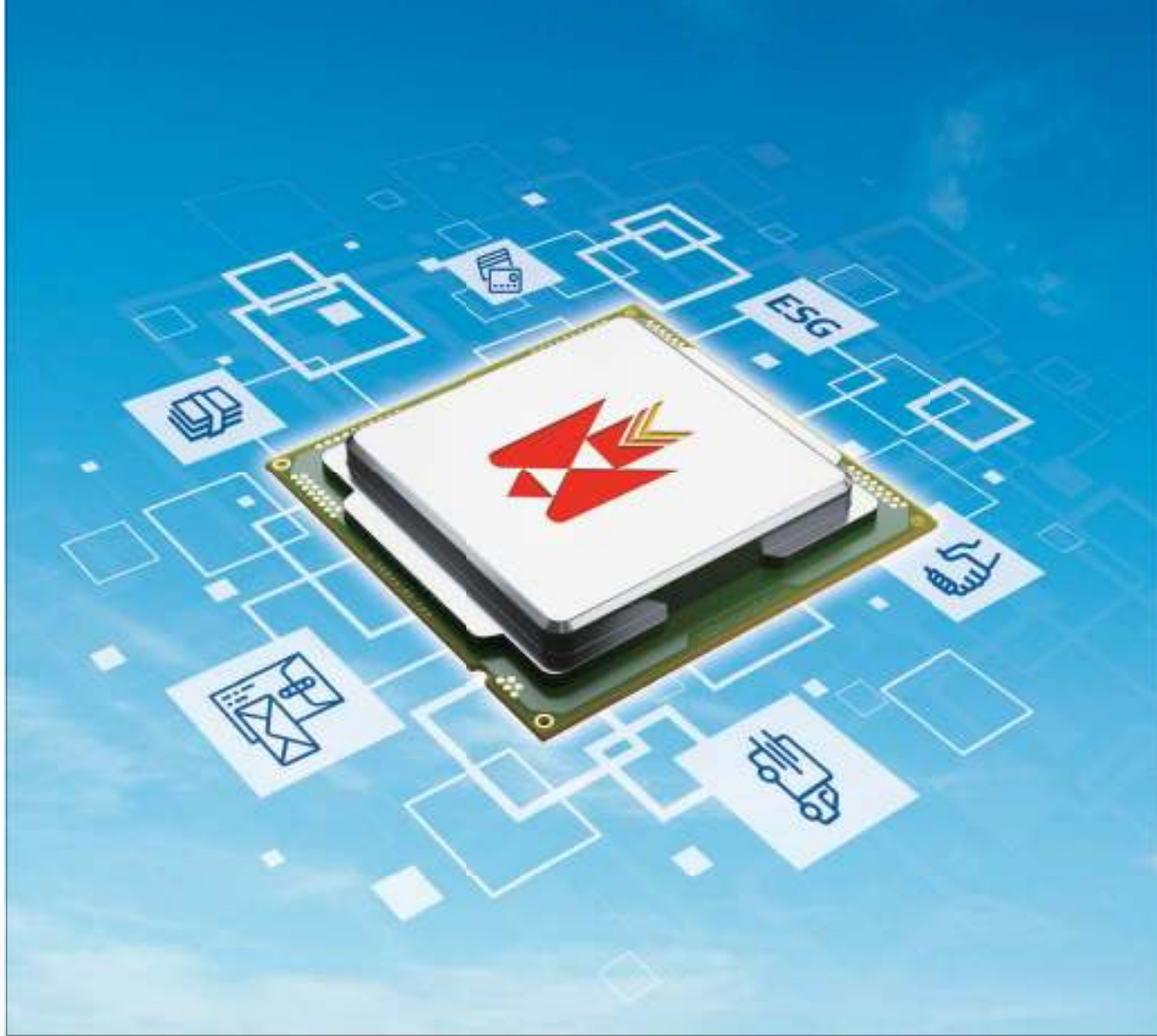
그는 “서금원에서 대출반고 중개수수료를 떼주기로 했다는 피해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이 안 되는 청년에게 ‘서금원 대출 중개인’이라며 접근해 ‘대출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면서 센터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금원 사칭 기관에 현금 피해를 본 50대 여성의 피해구제를 도운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도 했다.

우리동네지킴이라는 활동명도 센터에서 보고 들은 사례와 같은 피해를 ‘내 손으로 막는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시민들이 느끼길 바라며 지었다. 내년에는 지킴이 모집 인원을 상·하반기 각각 300명 내외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글·사진 유하영 기자 haha@

우정사업본부가 디지털 혁신을 시작합니다

더 빠른 우편 서비스,
더 편한 금융 서비스, 더 넓은 공익 서비스로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일자리·교통 품은 자족도시로… 인근 아파트값 고공행진

집값 움직이는 ‘먹고새니즘’ ④ 신규조성 3기 신도시<끝>

‘일자리·친환경·교통 친화’. 3기 신도시 개발 ‘3요소’다. 정부는3기 신도시 개발의 첫 발걸음부터 일자리를 품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1기 신도시 중 일부가 베드타운으로 전략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과거 1·2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을 반면교사 삼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자족 기능 강화를 계획 단계부터 적용해 건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집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평균 자족 용지 비율은 16.4%로 설정됐다.

이는 일자리 기능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동탄1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 비율이 9.7%, 2기 신도시 평균이 6.7%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전력투구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따르면 1·2기 신도시는 건설 초기보다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강화됐지만, 일부 신도시는 고용과 생활기반이 취약해 자족 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 대부분과 2기 신도시 중 한강(김포)과 옥정·회천 등 신도시는 고용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3기 신

1·2기 자족기능 부족 반면교사 일자리 확보·생활기반 시설 만전 남양주 스마트그리드·ESS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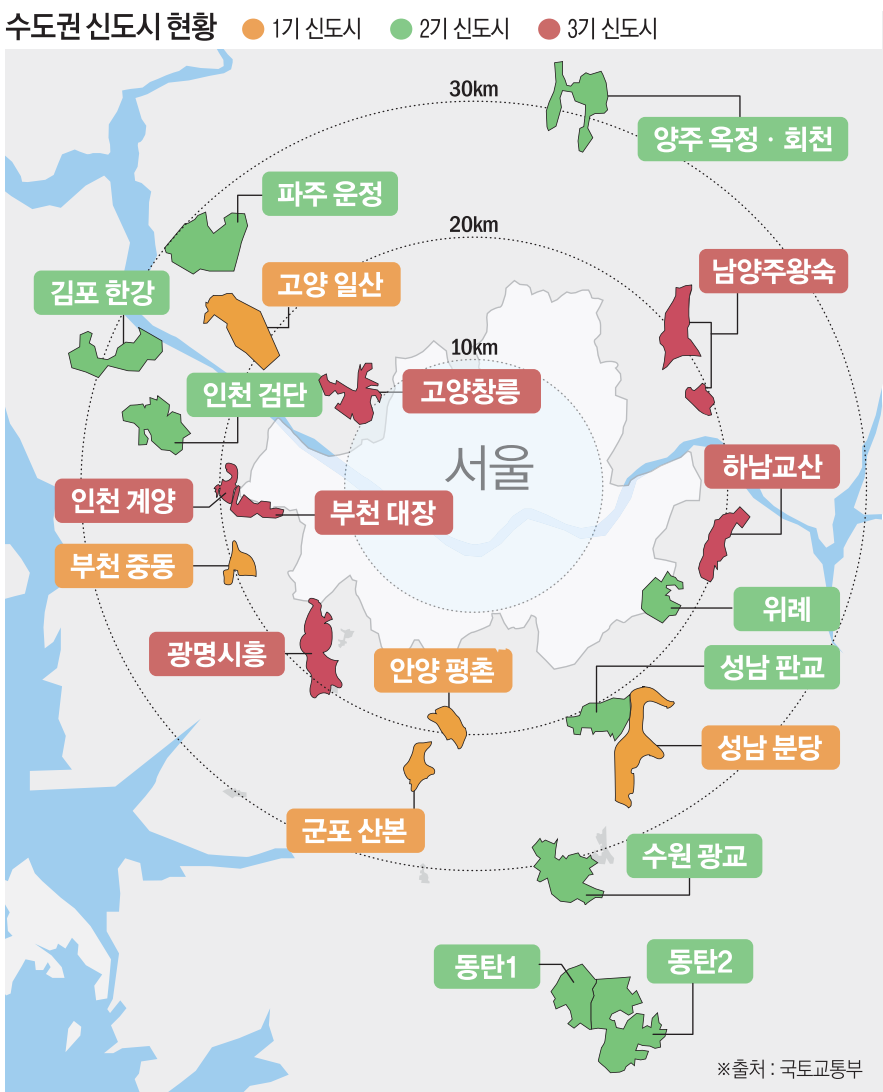
시 등 새 신도시는 신도시 주민의 서울재전출을 막기 위해선 신도시 일자리 확대와 교통 편의성 제고 등 두 가지를 핵심으로 짚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3기 신도시는 첨단 산업 일자리를 핵심으로 자족 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의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며, 자족 용지 중 일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일자리 계획으로는,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스마트그리드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산업을 육성한다. 하남교산지구는 신산업 분야인 전기차와 바이오헬스 등 지식산업 R&D 단지가 조성된다. 또 고양 창릉지구는 스마트기업지원 위한 ‘기업지원허브’ 등이 들어선다.

부천 대장지구는 지능형 로봇과 첨단소재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지난 4월에는 SK그룹이 부천대장지구 내 첨단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13만7000㎡ 규모 차세대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등 기술 연구개발(R&D)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인근에는 대규모 테



크노밸리 조성이 계획돼 사업이 한창이다. 경기도는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를 운영 중이다. 해당 TF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까지 운영된다.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의 자족 기능 용지는 248만㎡ 규모로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맞닿은 고양 일산과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각각 40만4000㎡와 109만

8000㎡의 자족 용지를 갖췄다. 두 곳을 합치면 약 150만㎡로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 자족 용지 중 60% 수준에 육박한다. 이밖에 인천 계양신도시 주변에는 제2의 판교 조성을 목표로 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일자리 청사진이 공개되자 개발 낙수효과가 기대되는 주변

부천, 지능형로봇·첨단소재 개발 인근에 대규모 테크노밸리 조성 자족기능 강화에 주변집값 상승

지역 아파트값은 일찌감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남양주 왕숙지구와 맞닿은 남양주 퇴계원을 ‘신별내 퇴계원어울림’ 전용면적 84㎡형 최고 매도 호가는 5억8000만 원 수준에 형성됐다. 이는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21년 3월 5억97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지난 8월에는 같은 평형이 최고 5억5000만 원에 실거래되는 등 신고가의 92% 수준까지 집값을 빠르게 회복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보다 자족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시작한다면, 고용과 직주근접 편리성으로 신도시 내 풍부한 주거 수요 증가로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판교 신도시 인근 IT와 BT(바이오기술) 기업이 밀집한 사레나 삼성전자 인근 광교·동탄·평택 고덕신도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안정화를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기업이 새로 조성된 자족 용지나 인근 테크노밸리로 실제로 이전해 정착하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한앤컴퍼니 ‘SK해운 지분매각’ 저울질 매물 쌓인 M&A 시장 “사실상 힘들 것”

부채 포함 매각가 100억弗 기대
HMM도 난항중...매각에 회의적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SK해운의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는 전략적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SK해운의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가 SK해운의 부채를 포함해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혹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SK해운의 개별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올 초 SK해운의 주력 사업인 탱커선사업 부매각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앤컴퍼니는 자사가 보유한 SK해운의 지분 가치를 20억 달러 이상(2조6000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소식통은 “해당 논의가 초기 단계여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1982년 설립된 SK해운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와 화물 등을 해상 운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초대형 원유운반선 30척을 보유한 국내 1위 탱커선사업자다. 지난해 매출은 18억 달러, 자산은 55억 달러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2018년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SK해운 지분 79%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를 위해 약 14억 달러의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SK해운의 23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음에 따라 인수·합병(M&A) 규모는 3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당시 한앤컴퍼니의 두 번째 규모 M&A였다. 2021년 기준 한앤컴퍼니의 SK해운 지분율은 71.43%다. SK그룹지주사인 SK(주)가 16.35%로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한앤컴퍼니는 한국에서의 기업 인수와 투자에 중점을 둔 사모펀드 운용사로 10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SK해운 외에 에이치라인 해운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해운업계 M&A 시장에는 SK해운 이외에도 현대LNG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풀라리스쉬핑 등 다수의 중형급 해운사 경영권이 매물로 나와 있다.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수년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형급 해운사만으로는 기존사업과 시너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되면서 해외로 매각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 1위 해운사인 HMM의 인수전배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중형 해운사의 M&A는 사실상 보류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진영 기자 mint@

“전세계 원전용량 3배로” 韓 포함 22개국 선언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UAE 주도 지지 선언문 발표
韓, 무탄소에너지 확산 모색
‘한-EU 대화체 신설’ 논의도



강경성(앞줄 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부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자력발전 사용 22개국이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2020년 대비 2050년 3배로, 목표 원전 용량은 약 1176GW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2개 국가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은 392GW다. 22개국은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1176GW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0년 세계 원전 개수는 441개다.

이들 22개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유지하는 데 원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또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

SMR) 등의 첨단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용후 핵연료도 장기간 책임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원전과 신산업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날 모하메드 알하마디 UAE 원자력공사 CEO를 만나 시간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 핵연료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원전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날인 1일엔 디데줄 요르겐센 EU 에너지 총국장을 만나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US 등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 초 ‘한-EU 에너지 대화체’를 신설해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는 협약엔 117개국(2일 현지 시간 기준)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세종=박병림 기자 riby@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 2.8억… 26년간 한달에 87만원꼴

통계청 ‘2021 국민이전계정’
1인당 총소비액 6억5287만원
정부·사회, 3분의 1 이상 지원
0~22세 공공이전 ‘순이익’ 유지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

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6억5287만 원이었다. 다만, 총소비액이 곧 양육비를 의미하진 않는다. 소비의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으로 조달됐으며, 18세 이후에는 유의미한 노동소득이 발생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

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다만, 18세부터 줄기 시작해 취업기인 23세 이후에는 ‘순비용’으로 전환됐다. 22세까지 공공이전 총액은 2억5058만 원이다. 양육에 필요한 총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사회가 지원하는 구조다. 노동소득은 17세에 발생해 18세 이후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었다. 26세까지 노동소득 총액은 1인당 9202만 원이다.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을 제외한 값은 대부분 ‘가구 내 이전’이다. 국민이전계정 흐름도에서 노동소비보다 노동소득이 적으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한다. 이 적자는 연령재배분을 통해 메

워진다. 연령재배분은 공공·민간연령재배분으로, 각각은 다시 이전과 자산재배분으로 나뉜다. 0~26세 구간에선 자산재배분 비중이 크지 않다. 상당분은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인데, 이 중 민간이전에 포함되는 ‘가구 내 이전’이 실질적인 양육비에 해당한다. 2021년 화폐가치 기준 0~26세 ‘가구 내 이전’ 총액은 2억8305만 원이다. 연평균 1048만 원, 월할 계산하면 약 87만 원이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월평균 87만 원이 든다는 의미다. 다른 통계·조사에서 산출된 양육비용은 대체로 이보다 높다. 해외 통계·조사 연구는 국내 양육비용 산출의 정확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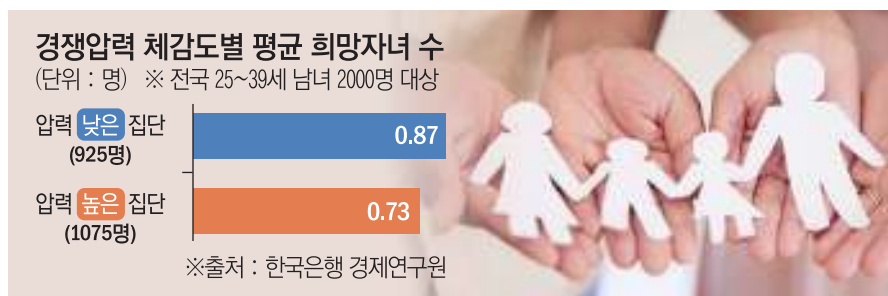
떨어진다. 국내 통계·조사도 양육비용이 과다 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대상 이 소비로 지출한 돈의 ‘원천’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아동수당 10만 원을 그대로 양육비로 썼다면 실제 가구 내 이전은 ‘0원’이지만, 조사에선 ‘10만 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계산한 양육비용은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높다. 한편, 27세 이후에도 ‘가구 내 이전’은 존재했다. 다만, 1인당 연간 이전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이를 양육비용 성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韓 인구감소, 중세 흑사병 때보다 심각… 성장률 0% 이하 올 수도”

‘초저출산 시대’ 경고등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률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뿐만 아니라 흑사병을 겪었던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가 심각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비유까지 나왔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000만 명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은 2050년대에는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 “출산율 변이에 따른 실질GDP

2070년 4000만명 이하 확률 90%
추세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높아져
“200명당 다음 세대 70명 남는 꼴
최퇴·이민자 양자택일 상황 올 것”

규모의 변화폭이 2060년대 중반에는 ±2.5%에 이르는 등, 출산율은 향후 우리 국민경제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보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에는 79.0%로 점증하며 2050년대(2050~2059년) 평균으로는 68%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2060년(80.1%) 이후에는 추세성장률이 0% 이하일 확률은 80%를 웃돌았다. 연구팀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배경에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2년 이후 2022년까지 21년간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했다.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및 지역은 한국, 홍콩, 마카오뿐이다. 이중엔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면 한국이 유일한 국가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작년 한해(0.78명)보다 더 줄었다. 외신에서는 흑사병을 겪었던 중세시대를 비유하며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트는 2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각하면서 그 배경을 진단했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1.7명, 프랑스는 1.8명, 캐나다 1.4명, 이탈리아 1.3명 등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합계출산율은 1.5명 안팎 수준”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올해 2분기와 3분기(잠정) 데이터에서 출산율이 0.7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0.7명을 유지하는 국가는 인구 200명당 다음 세대는 70명만 남게 되는 꼴”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우서트는 “2세대까지 시점을 확장해 보면 인구 200명이 25명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라고 빗댔다. 그는 또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빠르게 역전되면 경제 쇠퇴를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면 서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민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지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이진영 기자 mint@

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750만→1000만원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도 도입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이는 올해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다. 또 출

사용액 올해의 105% 초과 시 초과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



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바뀐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가 확대된다. 약 13만3000조 손자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액이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주유소 기름값 8주째 내림세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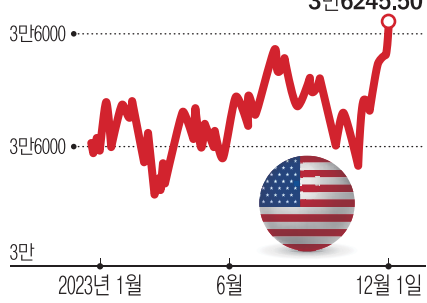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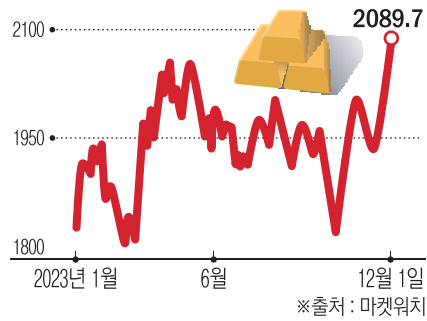
〈美연준 의장〉

파월 작심 발언에도... 금값 사상 최고·산타랠리 기대

미국증시 다우지수
※ 현지시간 증가 기준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금 선물 가격
(단위 : 온스당 달러) ※ 현지시간 증가 기준



“금리 완화 예측 시기상조”

전문가 “매파적 태도 약해졌다”
내년 3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금 온스당 2089.7달러 최고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일축에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산타랠리 투자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스펔만대학에서 헬렌 게일 총장과 대담하면서 “금리 완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충분히 긴축적인 기조를 달성했는지 자신 있게 결론짓기도 아직 이르다”

며 “만약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장에 너무 선부르다는 일침을 가하기 위함이었다.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존 입장에 반복했다. 하지만 시장은 그가 더 강한 ‘매파(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밀러 타박의 맏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지금까지의 발언보다 매파적 태도가 다소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파월의 발언이 의도와 달리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금융시장은 더 들쭉였다.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정책이 이미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한 파월의 평가를 최소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에 파월의 연설

이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전날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6000선을 돌파했다. S&P500 지수도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 현물과 선물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금 현물 가격은 전날 장중 온스당 2075.09달러(약 269만5540원)까지 치솟아 2020년 찍었던 사상 최고치 2072.49달러를 경신했다. 금 선물 가격은 1.6% 오른 온스당 2089.70달러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미국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일주일 전 약 20%에서 전날 67%로 대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달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글로벌 증시 벤치마크인 ‘MSCI 전 세계 국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9%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크로스마 크글로벌인베스트먼트의 밥 돌 수석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풀고 내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경제는 호조세를 띠고 기업 이익도 견조할 것이라는 게 현시점의 시장 컨센서스”라며 “이러한 분위기에선 증시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상승 폭이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의 첫 금리 인하 예상 시점 전망을 종전의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겼다.

변효선 기자 hsbun@

美 “메탄 80% 15년 안에 감축” 탄소 86배 슈퍼온실가스 규제

유엔 기후정상회의 핵심쟁점 부상

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슈퍼온실가스인 메탄이 올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알리 자이디 대통령 국가 기후 고문은 이날 COP28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메탄 배출량을 향후 15년간 8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PA는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038년까지 5800만여 톤(t)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규제안을 내놨다.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럽도 COP28에서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1억7500만 유로(약 2500억 원)의 재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EU)은 성명에서 “해당 기금은 중·저소득 국가의 메탄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에너지 부문 전반에서 정부·산업계·자선단체의 메탄 배출 감축 노력을 촉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와일드카드’인 세계 최대 메탄 배출국 중국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날 2035년까지의 기후 행동 계획에 메탄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미국 기후 관리들은 이날 두바이에서 ‘메탄 서밋’을 열고 메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2년 전 미국 주도의 국제 메탄 서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바 있다.

무색·무취의 메탄으로 인한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86배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온실가스에서 비롯된 온난화의 약 3분의 1이 메탄으로 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메탄 배출량 감축을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 밀거래 현장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마약 포장품을 검사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마라위시의 민다나오주립대 체육관에서 3일(현지시간) 천주교 미사 도중 폭탄 테러가 일어난 이후 경찰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테러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약 50명이 부상했다. 당국은 전날 정부군이 군사작전으로 친이슬람 무장단체 대원 11명을 사살한 데 따른 보복 행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전날 애플탑 인근에서 과격 이슬람주의자가 칼을 휘둘러 독일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등 세계 곳곳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 얼룩졌다. 마라위(필리핀)/EPA연합뉴스

中 꺾이지 않는 반도체굴기... 美 “예산 더 필요”

中, 7나노칩·DDR5램 자체 개발
美 장관 “매출보다 국가안보 중요”
반도체 규제 피로감 호소에 일침

미국의 고강도 대중국 수출 제재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반격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의회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게 놔둘 수 없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 예산은 2억 달러(약 2598억 원)다. 전투기 몇 대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중국 반도체 개발에) 진지하다면 필요한 만큼 자금을 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손해

를 보고 있다는 자국 기업에 일침도 가했다. 그는 “매출을 잃고 짜증이 난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은 단기 매출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부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한 선봉으로 화웨이를 낙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9월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에 빈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D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는 지난주 자국 최초의 ‘LPDDR5(Low Power Double Data Rate 5)’ D램을 생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모바일용 저전력 반도체 메

모리인 이 칩은 2018년 삼성전자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으며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됐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차세대 고급 모바일 메모리 칩을 개발함으로써 한국, 미국 경쟁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 인공지능(AI) 칩 스타트업 비런테크놀로지는 광둥성 지방정부와 연계된 투자자로부터 20억 위안(약 3645억 원)의 자금조달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런은 지난해 10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제재 타깃이 됐지만, 바이두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로 반도체 조달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수요를 맞추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스라엘, 지상전 예고...하마스, 휴전 요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임시 휴전 종료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남과 동시에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했고 하마스는 남성 인질을 앞세워 전면 휴전을 요구했다.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난 뒤 이틀 동안 가자 지구 전역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결렬 후 첫 24시간 동안 가자 전역의 400개 넘는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상전 없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목표는 인질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근절해 가자지구의 테러 정권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한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휴전 재개를 놓고 카타르와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네타냐후 총리 지시에 따라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네아 국장이 카타르 도하에 머무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면 휴전이 없으면 인질의 추가 석방도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마스 정치국 2인자인 살레흐 알아리리 부국장은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과의 협상은 중단됐다”면서 “전면적인 휴전이 이뤄지지 않고 팔레스타인 역류자들이 모두 풀려나지 않는 한 인질들은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커지는 CBDC 판도… 전 세계 득인가 독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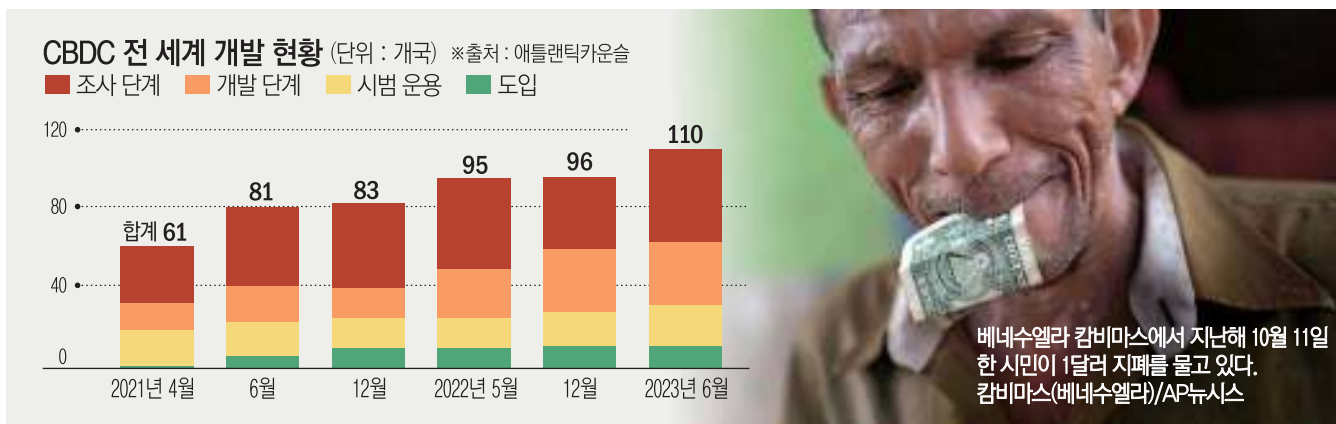
IMF “개발 다음 단계 진입”

세계 60% 국가서 발행 모색중
자국 통화→가상자산 전환 역제
통화정책 효과적 전달 순기능

기존 통화로 충분하다는 지적에
달러 위협·세계경제 분열 경고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이 초기 단계를 지남에 따라 향후 경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 위기, 인플레이션, 긴축 등으로 높아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존의 통화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CBDC 개발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고 발표하면서 CBDC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에는 상품 개발 가이드부터 통화정책과의 연관성, 자본



흐름 관리 등 CBDC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분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IMF는 CBDC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IMF는 “CBDC가 적절히 설계되면 통화정책을 전달하는 채널을 잠재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CBDC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환경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CBDC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 자국 통화를 달러나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 세계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붐을 일으키면서 CBDC 존재감은 커졌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약 60% 국가가 CBDC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 CBDC는 기본적으로 기존 통화와 1대1 비율로 고정된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이 발행한 CBDC는 종이 달러와 가치가 같은 디지털 달러가 되는 셈이다.

IMF가 언급했듯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진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자금 흐름을 더 수월하게 추적하고 금융 환경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CBDC는 실질 금리와 통화 거래 비용을 낮출 것으로도 전망된다.

다만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마스터 카드는 지금의 전통적 통화로도 충분한 상황이라 CBDC의 광범위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스터카드의 아쇼크 벤카테스와란 아시아태평양 가상자산 대표는 최근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늘날 많은 중앙은행은 CBDC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지금과 같은 유형의 통화를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한 상황이라서 CBDC의

광범위한 사용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싱가포르를 들었다. 그는 “싱가포르는 매우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곳에서 소매 결제로 CBDC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은행간 결제에 쓰일 도매용 CBDC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CBDC가 자칫 세계 경제를 분열시키고 달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헝트란 선임 연구원은 “단기적 시나리오에선 CBDC가 지정학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만 상호 운용되는 동시에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마찰과 비효율을 일으키고 결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해 세계 경제를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환거래에서 달러 수요가 줄면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량도 감소할 수 있다”며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이제 세계 경제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너도나도 뛰어드는 CBDC… 가상자산 업체도 가세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중남미바하마는 2020년 10월 세계 최초 CBDC인 ‘샌드달러’를 발행하면서 신호탄을 쏘았다. 이후 나이지리아와 자메이카, 동부 카리브해 등에서 실제 CBDC 도입이 이뤄졌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30년까지 24개국 중앙은행이 CBDC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 중앙은행이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CBDC 조사와 개발 범위도 천차만별이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CBDC 개발에 더욱 앞서는 중이다.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연구를 시작한 중

국은 2020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CBDC 거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부터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2년간의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8년 이후 CBDC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실시간 은행간 도매 결제를 위한 CBDC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내년부터 시중 은행들과 협력해 CBDC 시범 사용을 시작할 예정”이라

EU·中·러시아부터 리플사까지
BIS “2030년 24개국 보유 전망”

고 밝혔다. 초기 도매 CBDC 시험은 상업은행 간 소매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향후 국경 간 결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라비메는 MAS 상무는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CBDC의 실제 발행은 2016년 시작된 디지털 화폐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도매 결제용 CBDC 발행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를 위한 중앙은행 통화의 역

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도매용 CBDC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러시아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월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부터 CBDC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는 금 기반의 CBDC까지 도입했다.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금을 교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디지털 토큰이 온·오프라인에서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발행사인 리플도 CBDC 경쟁에 뛰어들었다. 리플의 샌디영 유럽 지역담당 이사는 “현재 CBDC 개발을 위해 12개가 넘는 국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CBDC를 비롯해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초 이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력 채용을 두 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전아현 기자 cahyun@



My First Choice



우리집 첫번째 로봇청소기

DEEBOT 9+



먼지통 자동비움



흡입 + 물걸레 동시가능



최적의 청소경로



장거리인식 dToF 센서



5,200Ah 대용량 배터리



3,000Pa 초강력 흡입력

에코백스 공식판매처



中 ‘흑연수출 통제’ 이어 美 ‘합작사 규제’… 위기의 K-배터리

내년부터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 활발하게 협력하던 한국 기업들의 선택도 복잡해졌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까지 겹치며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기회라는 시각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상 ‘해외우려기업(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



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

법인(JV)도 FEOC에 포함됐다. 한국 등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IRA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고려해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중국 배터리·소재업체와 활발하게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경북 구미에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양사의 지분율은 각각 51%, 49%다. LG화학은 4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필요하다면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과 중국 CNGR이 경북 포항에 설립한 전구체 합작공장의 경우 CNGR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SK온과 에코프로가 중국 거린메이와 합작한 새만금 전구체 공장은 중국 측 지분율이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려면 우리 기업의 추가 출자나 중

국 측 지분 매입이 필요한데, 공장 설립에 통상 조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분 조정을 위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판매 가격 하락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 또 이달부터는 중국이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진행하는 공급망 다변화와 수직 계열화, 차세대 배터리·소재 개발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조선-철강 후판가 협상… ‘소폭 인하’에 무게

저가 수입품에 국내제품 경쟁력↓
조선사 입장 반영… 연내 마무리

수개월 지속됐던 올 하반기 조선사와 철강사 간 조선용 후판가 협상이 상반기 가격보다 소폭 인하되며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의 가격 인하와 철강사의 가격 인상 주장이 엇갈렸는데, 수입 후판가 하락세 지속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후판가 협상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가격은 올 상반기보다 소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철강사들은 최근 철광석 가격이 톤(t)당 134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이를 후판 가격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황기 이후 약 10년 만에 호황기에 들어선 조선사들 역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무작정 후판 가격을 올릴 수 없으며, 중국·일본 등 수입 후판 가격이 하락세이니 오히려 가격 인하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특히, 후판가는 전체 선박 건조비용의 20~30%를 차지한다. 이제 막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한 조선사로서는 후판 가격이 또다시 인상되면 수익 면에서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하면서 평균적으로 2~3개월가량 걸렸던 가격 협상이 이번엔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협상 당시에도 원가 부담을 덜어달라는 철강사 측의 입장을 크게 반영하며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수입 후판과 가격 차이가 상당한 상황에서 조선사 측이 인상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후판가 협상 시기엔 중국산 후판가도 크게 치솟는 등 조선사가 수입 후판가 비율 증가라는 방식으로 국내 철강사들을 압박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입 후판가가 하락한 만큼, 더 이상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선사 측의 입장이다.

이처럼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하락세를 보인 외국산 후판 가격이 결국 이

번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후판 시장 점유율을 수입 후판의 저가공세에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철강사들이 결국 후판가 인하 쪽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톤당 90만~100만 원가량에 거래되던 중국산 후판가는 현재 톤당 7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산 후판가가 100만 원대에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약 92만 톤으로 지난해 수입량인 64만 톤을 이미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사들이 가격 인상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조선사들은 지금보다도 더 중국이나 일본산 후판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이 이어지며 철강사도 후판가 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조선사 입장이 더 반영된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ck@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

사진제공 기아

기아 EV9, 세계 3대 자동차상 후보 선정

북미·유럽·세계 ‘올해의 차’ 후보
‘진화하는 SDV’ 상품성 입증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유럽과 북미에서 연이어 수상한 데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도 올랐다.

기아는 덴마크자동차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덴마크 올해의 차 2024’에서 EV9이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EV9은 스페인 유력 일간 ‘라 반가르디아’가 전문가 심사단과 독자들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차 2023’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영국 유력자동차 전문 매체 탐기어가 주관하는 ‘2023 탐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패밀리카’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EV9은 기아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3열 대형 SUV다.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 99.8 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기아 커넥트 스토어·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SDV)로서 상품성도 지녔다.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와 ‘2024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2024 월드 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등 3개 부문 후보로도 꼽혔다.

기아는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와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EV9의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SK이노, CO₂→일산화탄소 전환기술 실증

온실가스 주범 이산화탄소 줄여

SK이노베이션이 전기화학적 촉매 반응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 연구개발(R&D) 조직인 환경과학기술원은 지난달 29일 ‘이원자(二原子) 촉매 기술’을 활용해 하루 1kg 상당의 일산화탄소를 제조해 화학공학 전문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원자 촉매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일산화탄소로 바꾸는 기술이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실증 결과를 케미컬 엔

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실었다. 국내 전기화학 시스템 전문업체 테크윈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원자 촉매를 활용한 일산화탄소 대량 생산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최초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일산화탄소를 확보하는 ‘일석 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최근 메탄올, 합성원유 등 대체연료 생산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불황에 소비심리 위축… 내년 내수車 판매 1.7% 감소

KAMA,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
생산 보합… 수출 소폭 증가할 듯

내년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감소할 것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정상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자동차산업 평가를 하고 내년 산업 여건을 전망한 ‘2023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차질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로 생산이 정상화하며 전년 대비 8.5% 증가한 9102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전년 대비 4.0%, 미국은 11.0%, 서유럽은 11.5%, 일본은 11.4%,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은 21.3%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1~10월 기준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7.7%의 점유율로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3위를 유지했다. 1위는 토요타, 2위는 폭스바겐이 차지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기조가 지속되며 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수출은 소폭 증가, 생산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수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주요 전동화 모델의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반도체 공급 개선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경기 부진으로 인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고금리 등이 신규 수요를 제한해 전년 대비 1.7% 감소한 171만 대로 전망된다.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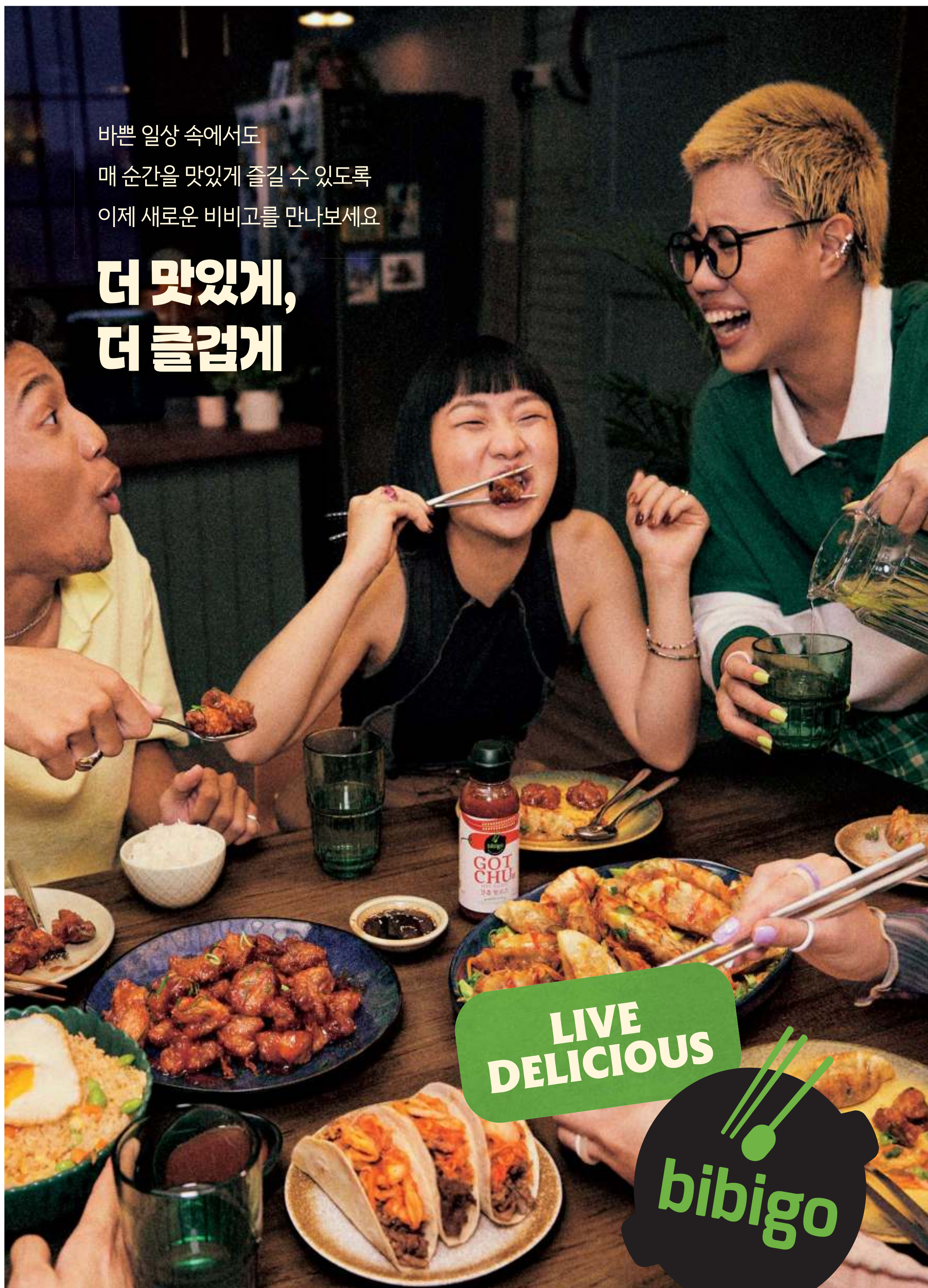
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정상화와 선진시장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275만 대, 수출액은 3.9% 증가한 715억 달러로 예상된다. 생산은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국내 수요 위축에도 견조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417만 대로 전망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내년 국내 시장은 전년 대비 반도체 공급 개선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경기 부진, 고금리 등으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내수 위축으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지 않도록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차 교체구매 지원, 친환경차 구매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소비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을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비비고를 만나보세요

**더 맛있게,
더 즐겁게**



**LIVE
DELICIOUS**

bibigo

‘남혐’ 논란에 게임업계 발칵… 일반 기업에도 ‘불똥’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
남성 신체부위 조롱 손모양 의혹
게임사 사과에도 이용자들 반발
“혐오” vs “억지”… 젠더 갈등에
포스코·삼성 등 대기업도 곤혹

유명 게임 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집게손가락’ 표현 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게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표현이 혐오의 표현인 집게손가락인지, 단순 반쪽 하트인지에 대한 논쟁을 넘어 게임사 직원들에 사상을 검증하는 모습도 보인다. 해당 사안은 논점에서 벗어나 사회 전방위적 젠더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 회사에 대한 고객 응대노동자 등 보호 조치 특별점검과 자율점검 지도를 시행한다.

최근 논란이 된 게임사인 넥슨도 포함한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개발자들에게 “페미(페미니스트)인지 답하라”며 사상을 검증하려 들거나, 폭력적인 사전을 보내는 등 ‘사이버 불링(괴롭힘)’을 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논란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로 시작해 게임업계 전반으로 퍼졌다. 발단은 메이플스토리의 신규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 모양이 포함됐다



‘남혐’ 논란이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 영상 일부. 유튜브 캡처

는 주장이었다. 집게손가락은 남성의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뜻으로, 남성혐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인 스튜디오 뿌리와 게임사 넥슨은 영상을 비공개하고 사과문을 냈다. 메이플스토리뿐 아니라 스튜디오 뿌리와 작업한 여타 게임들 역시 남성 혐오 표현이 포함된 영상 등을 내리고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일반 기업으로까지 번졌다. 포스코의 올해 신입사원 채용 영상에 집게손가락 모양이 등장한다는 논란이 일자 포스코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사내 메신저에 집게손 모양이 나온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해당 사진을 수정했다.

특히 해당 문제는 사회 문제로도 비화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넥슨은 해당 사건 발발 이후 진상조사에 나섰고, 여

성단체는 반발 기자회견을 넥슨 본사 앞에서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회 참가자들에게 칼부림하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해당 캐릭터를 그렸다고 지목된 스튜디오 뿌리의 여성 직원을 향해 인신공격 등 무차별 공격이 이뤄졌다. 담당 디자이너는 스튜디오 뿌리의 40대 남성 직원으로 밝혀졌으나 여성 직원에 대한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혐오 표현에 대한 우려와 곤란함을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터지면서 넥슨뿐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도 의도가 없는 캐릭터 손가락들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동료 간 신뢰 문제로도 불거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 입장에서 소비자인 유저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혐오 의도라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혐오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안은 디자이너들에게도 번졌다. 한 디자이너는 “최근 논란으로 손가락 표현에 대한 검열 수준이 높아졌다”며 “특정 사상을 가졌다고 오해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디자이너는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AI를 학습해 개개인의 특정 사상을 나타내는 표현은 모두 배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씩씩한 웃음을 보였다.

임유진 기자 newjean@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화면.

네이버 캡처

“사이버 명예훼손 원스톱 신고”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만든다

누군가 네이버 서비스에 게시물을 올려 본인의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했거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 신고와 처리하는 것이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이달 안에 이 같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3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해 게시물 관련 각종 침해 신고를 통합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보호센터는 기존에 네이버가 운영해오던 저작권보

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 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삭제 요청이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의 경우 권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를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네이버쇼핑 판매자용 스마트스토어센터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지식재산권 신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고 지재권 침해 신고를 한 권리자에게 이메일·문자서비스(SMS)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편하고 빠르게 입증할 수 있다”며 “쇼핑, UGC 게시물 신고와 처리 이력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LG유플 ‘아이들나라’ 디지털 도서관 탈바꿈

3년 내 인기도서 1만권으로 확대
아이 관심사 따라 책추천 ‘도서관’
리딩북·오디오북 2가지 ‘독서모드’
터치 뜻풀이 ‘아이들 사전’ 기능도
월정액 1만9800원… 첫달 무료
내년 1월까지 50%할인 프로모션

LG유플러스(LGU+)는 3일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환하고, 3년 내 인기도서를 1만 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 학습, 놀이를 목적으로 6만여 편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이들나라는 독서 서비스에서 감점이 있다. 지난해 12월 아이들나라 앱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11월까지 지난 1년간 독서 콘텐츠 이용고객은 전체 고객의 83%, 누적 시청 건수는 352만여 건, 누적 시청시간은 19만여 시간에 달했다.

이에 회사는 독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다고 판단하고 아이들나라를 전국 만 2~8세 어린이 240만 명을 겨냥해 독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까지 인기 도서를 1만 권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함께 설정했다. 현재 아이들나라는 베스트·스테디셀러, 키즈스쿨레, 그레이트북스 등 브랜드 전집과 해외 도서 등 인기



LG유플러스 어린이 모델들이 새롭게 개편된 아이들나라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어린이 도서 4000여 권을 제공하고 있다. 강화된 독서 서비스에는 아이관심사에 따라 책을 추천하는 ‘도서관’ 메뉴 신설, 독서 목적별로 최적화된 ‘독서 모드’, 모르는 단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아이들 사전’ 등이 새로 추가된다.

‘도서관’에서는 △노래·유행, 동식물, 숫자, 기계, 운동 등 성향별 △만 3세 이하부터 8세 이상까지 연령별 △동물, 자연, 배우기 등 관심사별로 전문가가 책을 추천해준다. ‘독서모드’는 직접 책장을 넘기는 전자책 방식의 ‘리딩북’, 취침 전 오디오 재생으로 청취가 가능한 ‘오디오북’을 선보인다. 모르는 단어를 터치하면 뜻을 쉽게 풀어알려주는 ‘아이들사전’ 기능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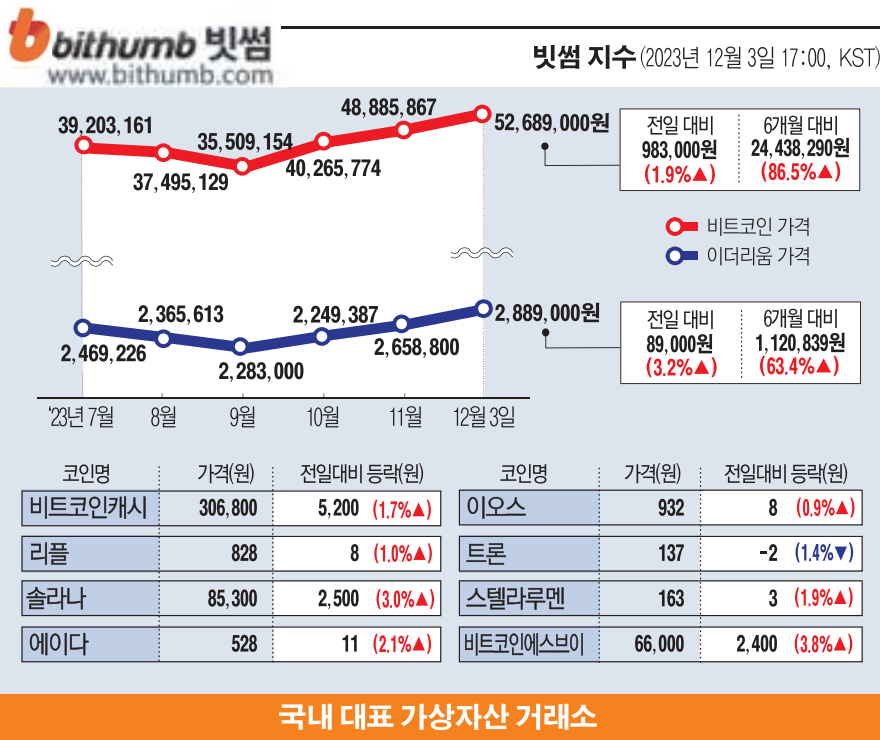
아이들나라는 내년 1분기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독서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독서 기록장’을 출시하는 등 고객들의 서비

스 사용행태를 분석해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발굴해 지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호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담당은 “실제 부모로서 아이가 독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어, 우리 아이가 직접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도움이 되는 독서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디지털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기획하게 됐다”며, “키즈 서비스 경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나라는 이용하는 통신사 관계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월정액은 1만9800원이며, 가입 후 첫 1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가입하면 50% 할인된 월 9900원에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집값 약세장 진입에… 먼저 식어가는 지방 청약시장

11월 지방 분양, 일부 평형 외 대부분 미달 기록하며 ‘냉탕’ 수도권은 입지·가격 좋은 곳 청약자 물리며 여전히 ‘온탕’

미분양 적체 속 분양가도 상승 “지방 청약 당분간 부진” 전망

집값 약세장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방 청약시장이 식고 있다. 지방에선 최근 한 달 사이에 실수요자들의 주택매수심리가 빠르게 식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단지 경쟁력이 있는 곳에 수만 명이 청약통장을 던지면서 경쟁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지방과 정반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청약받은 부산 해운대구 ‘더폴디오션’은 176가구 모집에 단 40

명만 청약해 모든 평형에서 미달했다. 또 같은 시기 분양한 부산 남구 ‘해링턴 마레’ 역시 1297가구 모집에 865명만 신청해 테라스 구조인 전용면적 84T㎡형만 1순위 마감에 성공하고, 나머지 평형은 미달했다. 부산은 10월까지 준수한 청약 성적을 이어갔지만 이달 들어 낙제점 수준의 청약 성적을 기록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산 남구에서 분양한 ‘더비치 푸르지오써밋’은 252가구 모집에 5606명이 몰려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월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16블록 중층S클래스’ 역시 6.3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부산 청약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청약시장이 얼어 붙었다. 지난달 29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대전 서구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전용 84㎡형과 전용 101㎡형 등 중대형 평형에만 지원자가 몰렸다. 전용 74㎡형 이하 평형

은 모두 미달했다. 지방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북 임실군에 짓는 ‘임실고운라피네 더퍼스트’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청약 결과, 총 129가구 모집에 7명만 청약했다. 또 지난달 13~15일 청약 신청을 받은 경남 거제시 ‘오션 월드 메르디앙 더 리치먼드’ 역시 220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는 10건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은 입지와 가격 편장은 곳에 여전히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지방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지난달 15일까지 청약한 경기 파주시 ‘파주온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은 170가구 모집에 1만

8494명 지원해 평균 10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서울에선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역시 169가구 모집에 2만5783명 몰리면 서 평균 153대 1, 최고 3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듯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시장 온도 차이는 전국 아파트값 하락 전환으로 지방부터 주택 청약 심리가 꺾인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954가구로 전월(1836가구) 대비 6.4%

(118가구) 증가했지만, 지방은 8270가구로 전월(7677가구)보다 7.7%(593가구) 늘어 수도권보다 약성 미분양 물량 증가율이 더 높았다. 특히, 충남 30.9%(643→842가구), 대구 26.8%(712→903가구) 등 지방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지방 분양 단지의 몸값이 부쩍 올라 지방 청약의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 “3~4년 전까지 웬만한 분양 단지는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요즘은 분양가 상승으로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수요가 적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가격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곳은 흥행하지 못하는 선별적 청약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11월 지방 아파트 청약 결과 ※출처 : 청약홈

단지명	청약결과 및 경쟁률
부산 해운대구 '더폴디오션'	176가구 모집에 40명 청약 미달
부산 남구 '해링턴 마레'	1297가구 모집에 865명 청약 미달
대전 서구 '도마 포레나해모로'	464가구 모집에 464명 청약 1:1
전북 임실군 '임실고운라피네 더퍼스트'	129가구 모집에 7명 청약 미달
경남 거제시 '오션 월드메르디앙 더 리치먼드'	220가구 모집에 10명 청약 미달

상암 평화의공원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조성 본격화 SH 참여 컨소시엄,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시, 내년초 기재부에 검증 요청 녹지공간·복합문화시설 포함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대관람차의 윤곽이 잡혔다. 세계 최초로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Twin Wheel)’ 형태로, 시는 지난 달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내년 초 기획재정부 검증을 요청해 사업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대관람차를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가칭)서울 트윈아이(Seoul TwinEye)’를 최초 제안으로 접수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세부 계획 등은 향후 기재부 검증, 제3자 공고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 등 상암동 일대에 살 없는(Spokeless) 고리형태의 창의적 디자인을 갖춘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사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투시도. 사진제공 서울시

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9월 시작된 대관람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제안서를 접수한 ‘(가칭)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SH공사와 더리츠, 이밖의 3개 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11월 29일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민간투자법’ 상 최초제안자 지위를 가진다. 서울 트윈아이 컨소시엄은 시가 발표한 기본방향을 반영하되 접근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마포구 상암동) 난지 연못 일대에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형태의 대

관람차 서울 트윈아이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 사전검토를 거친 뒤 내달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 제안서를 넘겨 사업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의 적격성을 검증받은 뒤에는 ‘제3자 공고’를 시행,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제3자 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외의 사업자로부터 조성계획을 제안받아 우수한 사업계획을 최종 선정하는 법적 공개경쟁 절차다. 제안서(안)에는 지름 180m 규모의 대관람차 디자인이 담겼다. 살이 없는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이며,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 휠 형태로는 세계 최초다. 캡슐 64개에 한 주기당 1440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제안됐다. 건축물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녹지공간까지 포함해 대규모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식당 및 상업시설 등을 배치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협력

파리 원자력박람회서 LOI 체결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원전 분야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에 네르코아том(Energoatom)과 원전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상호 사업 정보 교류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리 노르발랭드 전시관에서 열린 세계원자력박람회 2023(WNE·World

Nuclear Exhibition 2023) 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서명식에는 운영준 현대건설 사장, 페트로 코틴 에네르코아том 사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현대건설과 에네르코아том 양사는 협력의향서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대형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신규 원전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 원전 연구개발 관련 기술·경험 교류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 전문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과 함께 2029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SMR 파일럿 설치에 이어 향후 최대 20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건설 윤영준(오른쪽) 사장과 에네르코아том 페트로 코틴 사장이 원전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건설 배치할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전력공사(Ukrenergo)와 송변전 시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사업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보규 기자 jbk@

금주의 분양캘린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9879가구(일반분양 9475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와 부산 강서구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그랑루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총 5개 단지에서 청약당첨자를 발표한다. 인천 중구 ‘운서역대라수어썸에듀’와 부산 남구 ‘해링턴마레’ 등은 5일 당첨자

를 가린다. 대전 서구 ‘도마포레나해모로’는 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 진행 단지는 총 13곳이다.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과 강원 춘천시 ‘춘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는 6일까지, 경기 파주시 ‘파주온정신도시 우미린더센텀’은 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2곳이다.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와 충남 아산시 ‘당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은 8일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2/4 (월)	계약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12/6)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온정신도시우미린더센텀 (~12/7)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나센트랄힐(공공임대) (~12/7)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해모로센티아 (~12/6)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 (~12/6)
12/5 (화)	접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1순위
		경기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파라곤 1순위
		인천	미추홀구	송의동	e편한세상제물포역파크메종 1순위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1순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아틀리에933 1순위
		강원	강릉시	건소동	강릉모아미래도오션리버 1순위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1순위
		충북	청주시	용암동	원봉공원힐데스하임 1순위
	발표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대라수어썸에듀
		부산	남구	우암동	해링턴마레
	계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임실고운라피네더퍼스트
		경기	용인시	포곡읍	용인에버랜드역칸타빌 (~12/7)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 (~12/7)
		경기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 (~12/7)
		광주	광산구	선암동	광주선운2A1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12/7)
		광주	광산구	선암동	광주선운2A3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12/7)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2순위
		경기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파라곤 2순위
		인천	미추홀구	송의동	e편한세상제물포역파크메종 2순위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2순위
12/6 (수)	접수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그랑루체 1순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아틀리에933 2순위
		강원	강릉시	건소동	강릉모아미래도오션리버 2순위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2순위
		충북	청주시	용암동	원봉공원힐데스하임 2순위
	발표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포레나해모로
	계약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A2(행복주택) (~12/8)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A3(행복주택) (~12/8)
12/7 (목)	접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삼익더랩소디 1순위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그랑루체 2순위
12/8 (금)	오픈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	당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삼익더랩소디 2순위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역롯데캐슬다뉴얼 1순위
12/10(일)	계약	인천	서구	원당동	제일풍경채점단Ⅳ 1순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 (~12/12)

(주)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 부동산R114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IFRS17에 불확실성 커졌다”… 올 보험사 M&A ‘0건’

KDB·ABL생명 등 매물만 5곳
경기 침체·고금리에 인수 부담
몇차례 매각 협상했지만 불발
새 회계제도에 순익 줄자 관망세
내년 하반기께 시장 회복할 듯

올해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보험사인수합병(M&A) 시장에서 단 한 건의 딜도 성사되지 않았다. 유찰이 반복되거나 타이밍을 보는 잠재 매물만 5곳에 이른다.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M&A 인수 의지와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의 ‘새 주인’ 찾기가 맞아떨어지면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쌓이기만 할 뿐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원매자의 인수 부담이 큰 데다 새 회계제도(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

보험사 M&A 시장 현황 (단위 : 원)		
	추정 매각가	진행상황
KDB생명	2000억	유찰
ABL생명	3~4000억	유찰
MG손해보험	3000억	유찰
롯데손해보험	2~3조	주관사선정

인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자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A 시장에 나온 보험사 매물은 ABL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 등이다.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도 잠재 매물로 거론된다.

KDB생명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딜 성사가 대감이 높았지만 최종 불발됐다. 하나금융은 약 두 달간 실사작업을 거친 뒤 “그룹

의 보험업 강화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을 뺐다.

ABL생명은 지난 8월 예비입찰에서 다수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 ABL생명은 한 사모펀드사가 BNK금융지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려 했으나 BNK측이 인수를 철회하면서 매각이 물건너갔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사도 BNK금융을 보고 들어갔을 것”이라며 “BNK 측이 발을 빼자 함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손보와 MG손보 역시 올 한해 시장에 매물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새로운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사모펀드가 주인인 롯데손보의 경우 퇴직연금에 특화된 포트폴리오 등으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사실상 1조 원대 매물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받지만 3조 원에 달하는 가격에서 낮추지 않고 있다”며 “JK파트너스에서 롯데손보에 투자한게 소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인거라 내부 이슈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낮췄을 것”이라고도 했다.

MG손보도 지난달 진행된 입찰에 사모펀드 한 곳만 참여하는 등 예비 인수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MG손보를 경영권리 중인 예금보험공사 측은 MG손보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와 논의

하겠다고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보험 M&A 시장이 얼어붙은 건 바뀐 IFRS17 영향이 크다. IFRS17 이후 발표된 실적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올 초 보험사들의 실적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익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다. 매수자 입장에서 높아진 몸값을 쉽게 수급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비은행 강화를 내건 금융지주마저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및 총당금 압박으로 인해 여유가 없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M&A 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리스크가 큰 산업으로 바뀌었다”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리스크 요인이 해소된 후 내년 하반기는 되어서야 M&A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연 기자 sjy@

진옥동 회장, 쪽방촌 찾아 생필품 전달

〈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진 회장 및 그룹사 CEO들이 참석해 쪽방촌 주민 생필품 나눔 매장인 ‘온기창고’에 방문해 18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온기창고는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기업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후원 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필요한 물품을 주민들이 각자 부여 받은 포



진옥동(앞줄 왼쪽)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사 CEO들과 1일 쪽방촌 주민 생필품 나눔 매장인 ‘온기창고’에 방문해 18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

인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창고형 매장이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공기업, 차주 대신 갚아준 돈 ‘10조’

작년 대위변제액 대비 74% ↑
HUG 3조5742억… 3배 넘어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의 3배를 넘어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 15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합하면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13개 보증기관(HUG·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작년 연간 변제액(1조581억원)의 3배를 이미 넘어섰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0월 4.5%로 상승했고, 임대보증금보증(개인) 대위변제율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7.8%로 급등했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신보의 소상공인 2차금융지원 대위변제율은 2.8%에서 10.1%까지 치솟았다.

주금공(3375억원→5026억원), 서금원(3673억원→7498억원), 기보(4946억원→7521억원) 등 기관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 서지연 기자 sjy@

롯데손보, 영업지원 플랫폼 ‘윈더’ 출시

설계·청약 등 전 과정 앱으로

누구나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롯데손해보험은 보험 영업 전 과정의 업무를 모바일에서 완수할 수 있는 영업지원 플랫폼 ‘윈더’(wonder™)를 신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윈더는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한 ‘스페이스리스’(Spaceless) 모델을 도입해 보험업의 디지털 전환(DT)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윈더는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의 전 과정을 휴대전화 앱(어플리케이션)에 담아 설계사가 사무실에 전혀 출근하지 않고 전체 영업 과정을 ‘손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 고안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장기보장성보험 판매도 모든 절차를 윈더 하나로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모바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담보에 대한 설계 결과물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인수지침과 담보별 연계조건 등이 실시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설계사는 사무실을 오가며 쏟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 온전히 보험 영업에 투자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윈더를 통해 임대료 등 각

종 간접 사업비 및 고정비용을 절감해, 설계사에게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보험서비스(상품)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윈더는 ‘N잡러’(다중 직업 보유자)를 비롯한 누구나 앱 하나로 쉽게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험 영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윈더에서 설계사 입문교육과 모의고사를 수강·수료할 수 있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별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설계사로 바로 활동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인 △보장분석 △보험서비스(상품) 설계 △제안서 발송에 더해 △고수 찬스(지난 1년간 우수한 영업 실적을 올린 ‘고수’의 설계를 복사해 적용하는 기능)와 △조인(Join) 찬스(다른 설계사와 함께 영업해 등 실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등 부가기능도 대거 포함됐다.

청약과 배서 등 판매의 핵심적인 과정도 윈더의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완료된다. 고객 생일 및 기념일을 메신저 형태로 설계사에게 알려주는 등 사후 고객관리 역시 쉽게 가능하다. 예상 소득, 소득 현황 등도 윈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지연 기자 sjy@

함영주 회장 “더 큰 도약 위해 잠시 숨 고르기 할 때”

하나금융그룹 출범 18주년

‘NEW 하나 모두의…’ 슬로건 발표
“고객·직원·사회공동체와 상생을”

“그룹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금융그룹만의 성장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숨을 골라야 한다.”

1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같이 밝힌 뒤 당당에 모인 직원들에게 “잠시 뒤돌아보자”며 자리를 뒤로 돌아 앉게 했다.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의 퍼포먼스였다.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쉬어 부족한 것을 찾자는 것이다.

3일 하나금융은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그룹의 성장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뉴(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라는 슬로건으로 그룹의 미래 방향 설정과 실천을 위한 다짐



1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함영주(앞줄 가운데)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그룹 관계사 임직원 300여 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뒤돌아보고 ‘진심의 하나(고객가치)’ ‘세상의 하나(사회가치)’를 실천하는 선하고 진심이 담긴 다짐이라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이 고객, 직원, 사회공동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

원의 행복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을 위한) 쉽다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찾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했다.

서지연 기자 sjy@

반도체 낙관론에… 외국인, 삼성전자 2兆 폭풍매수

11월 증시 매매 동향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내년 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다. 11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조7000억 원 가량 쏟아부었다. 싼값에 사두자는 움직임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6890억 원 매수우위를 기록해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오던 순매도세를 멈췄다.

지난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삼성전자로, 순매수액은 2조90억 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679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순매수액(2조6880억 원)은 전체유가증권시장순매수액(3조3700억 원)의 80%에 달했다.

지난 10월 외국인순매수 상위 1·2위가 에코프로(2930억 원)와 금양(1890억 원)으로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3개월 만에 4.7兆 매수우위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 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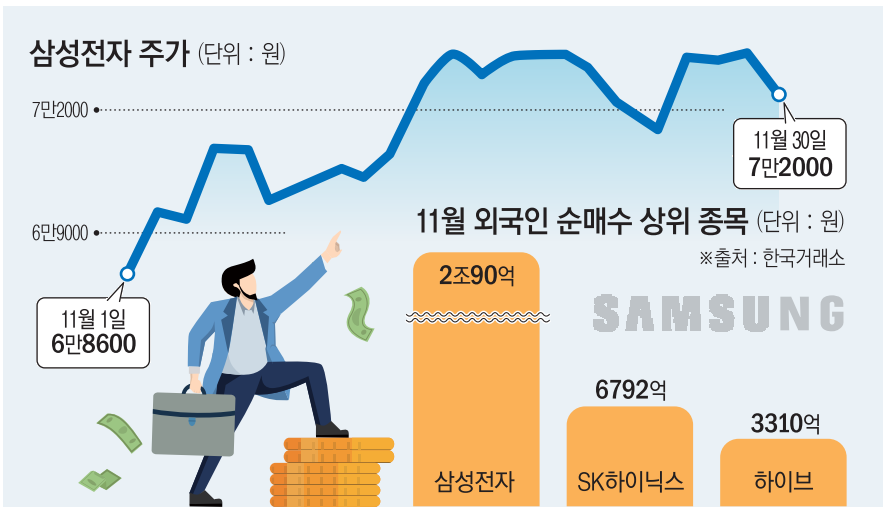
스마트폰·AI제품 수요 늘며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

‘팔자’ 상위엔 이차전지 집중

경기 상황을 앞서 반영하는 반도체 주식의 특성상 내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한 9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이후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상승하면서 11월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하면서 스마트폰 신제품과 인공지능(AI)



) 서버용 제품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전년 대비 35% 이상 역성장했으나, 내년에는 43% 이상 반등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 한 해 동안 이어지고, 2025년 상반기에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모건스탠리 분석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연간 주당순이익(EPS)은 올해 33

% 줄어든 데서 내년 61% 늘어나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HSBC는 내년 EPS가 2022년과 비교하면 2% 개선되는데 그칠 것이라며 이같은 변동성을 ‘중립’ 의견의 근거로 들었다고 이 부전문위원은 전했다. 이 부전문위원은 “한국 증시 내 특정 업종 쏠림은 높은 이익 변동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주주환원 확대 등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 하는 이유는 주가가 낮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 9만 원으로 제시했다.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랜 기간 반도체 업황을 괴롭혀왔던 과잉 재고는 올 연말을 지나면서 점차 해소되고, 대규모 감산 이후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메모리 반도체는 과잉 재고의 소진과 함께 가격의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추 정치를 전 분기 대비 64% 증가한 4조 원으로, 내년은 전년 대비 380% 증가한 37조 원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POSCO홀딩스로 3700억 원매도우위를 보였다. 이어 삼성SDI(3590억 원), 포스코퓨처엠(3240억 원), LG화학(2230억 원), 에코프로머티리얼즈(1360억 원) 등의 순으로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정희인 기자 hihello@

LG엔솔

시총 2위 쟁탈전

SK하이닉스

2위 LG엔솔, 업황 불확실성 속 하이닉스는 HBM 실적견인할 듯

시가총액 순위 2위 자리를 놓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다툼이 치열하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시총 100조2690억 원을 기록하며 2위 자리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은96조5331억 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업황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다시 2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 크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매출 기준올해 3분기 서버용D램 점유율 49.6%(1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1위를 달성했다. 2, 3위는삼성전자와마이크론이 각각 35.2%(13억1000만달러), 15%(5억6000만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3분기 서버용D램점유율에서 인공지능(AI) 서버용고대역폭메모리(HBM)는반영되지않아 3분기 HBM을 포함한 SK하이닉스

서버용D램 점유율은 2위인 삼성과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을 준비 중인 경쟁사들과 달리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엔비디아와 HBM4 개발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 HBM 중심의 본격적이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HBM 시장은 생산 수율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SK하이닉스의 승자독식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을 둘러싼 내년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내년 폴란드, 미국 앨터델즈 2공장 증설이 예정돼 있었으나 폴란드 공장은 지연됐다. 미국 공장만 내년 1분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전기차(EV) 수요 둔화 우려로 2공장 가동률은 유동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매출비중 27% 이상을 차지하는 볼트(Bolt) 생산 중단으로 Q(물량) 감소 우려가 있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제너럴모터스(GM)뿐만 아니라 포드 머스

탱 마하-E(Ford Mustang Mach-E)도 모든 스탠다드 레인지(Standard-Range)에 리튬인산철(LFP) 적용을 선언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수요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실적도 역전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LG에너지솔루션의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는올해 2조4238억 원에서 내년 4조2487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올해 영업이익자 8조3833억 원에서 내년 8조4696억 원으로 흑자전환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영업이익을넘어설 전망이다. 키움증권은SK하이닉스의내년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다. 유안타증권은 11조 원을 예상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2월 LG에너지솔루션과SK하이닉스의 시총 2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이익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금감원, 증권사 채권영업 관행 손본다

올해 개인 채권 순매수액 35兆 거래비용·투자위험 등 고지해야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추진

올해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액이 35조 원에 달하는 등 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채권은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채권도 가격이 변동하므로 무턱대고 매수했다가는 되레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직접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채권 투자위험 및 거래비용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권사 영업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채권은 34조59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순매수액 20조 6113억 원보다 13조 9828억 원이 많은 규모다.

다만 높은 금리에 눈이 멀어 무턱대고 채권을 거래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채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휴지조

각이 돼버린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

채권의 현재가와 만기 때의 가격이 같을 것이란 보장이 없으므로 채권 가격도 고려 요소다. 1만원에 표면금리 5% 채권을 매수했는데 1년 뒤 가격이 8000원으로 내려가면 최소 15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해외채권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가능성을 염두에 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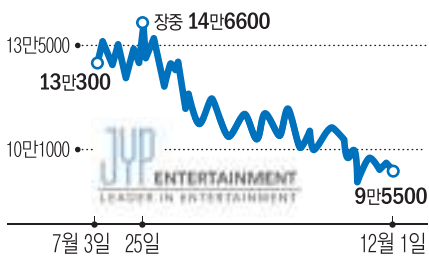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를 고려해 증권사 영업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채권 판매 시 거래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채권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매긴 금리 평균)나 가격, 거래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채권 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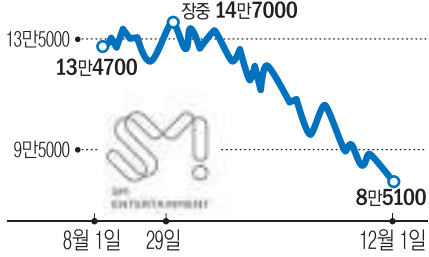
핵심 설명서를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채권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pmk8989@

JYP Ent. 주가 (단위 : 원)



에스엠 주가 (단위 : 원)



고개 숙인 엔터주… 증권가 “내년 음원 스트리밍 성장에 호실적 기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엔터주들의 주가가 맥을 못추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FnGuide K-POP&미디어지수를 추종하는 HANARO Fn K-POP&미디어 ETF는 올해 하반기 이후 22.93% 하락했다. 해당 ETF는 JYP Ent(엔터),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CJENM, 스튜디오드래곤, YG엔터테인먼트 등을 구성 종목으로 갖고 있다.

같은 기간 ‘TIGER 미디어컨텐츠’ ETF는 21.63% 내렸다. 구성 종목은 CJENM

일제 하락세에 ETF 수익률 부진 2분기 기준 월간 청취자 유지되면 연간 16.5% 수준 성장 가능해

,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드래곤, 디어유 등이다.

국내 엔터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 들어 일제히 하락한 여파다. JYP Ent(엔터)는 7월 장 중 고점 14만6600원 대비 34% 내린 9만5500원을 기록 중이다. 일부 보유 지식재산권(IP)의 성장성이 정체되면서

실적 정체 우려가 확대된 영향에 엔터 산업 전반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SM은 하반기 약세를 이어가며 8만 원대로 하락한 상태다. 8월 장 중 고점 14만7000원 대비해선 42% 가량 하락했다.

하이브도 하반기 들어 7월 고점 29만1000원 대비 27% 내린 21만1500원을 기록 중이다. 기존 아티스트의 높은 기저와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구독형 멤버십 수익 지연 등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YG엔터테인먼트는 8월 전속계약이만료된 3세대 대표 걸그룹 블랭핑크의 재계약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환옥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평균 수준의 월간 청취자 수가 내년에도 연간 유지된다는 가정을 세워 본다면, 내년 음원 스트리밍 부문의 실적 성장은 전년 대비 5.8% 상승 가능하다”며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내 자연 성장 10.7%를 고려하면 16.5% 수준의 연간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더현대 서울, 연매출 1조 돌파… 백화점 신기록 썼다

〈2년 9개월 만에〉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이 개점 33개월 만에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 달성 기록이다. 현대백화점은 전날 더현대 서울의 올해 누적 매출이 1조41억 원을 달성, 2021년 2월 26일 개장 후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 점포’로 등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전 기록을 2년 2개월 앞당긴 것이다.

◇글로벌 MZ 성지, 방한 필수 코스… 외국인 매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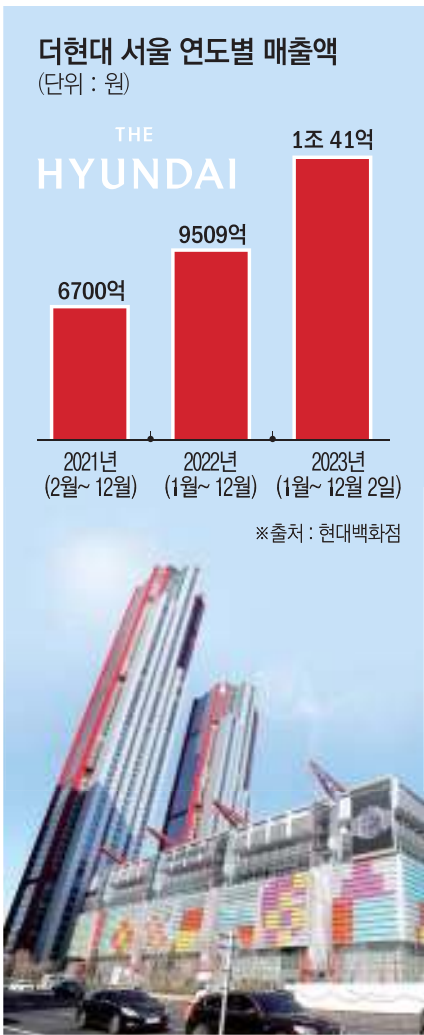
더현대 서울은 최단 기간 연 매출 1조 원 돌파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쇼핑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는 자평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서울은 단순 쇼핑 공간에 머물던 백화점에 대한 인식을 깨고 오프라인의 재발견, 공간 경험의 가치 극대화 등 유통(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수준의 MD (Merchandise·상품기획자) 역량과 더현대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K패션 브랜드 등 참신한 콘텐츠 발굴 노력, 이로 인한 객단가 상승 등이 최단 기간 1조 원 돌

종전 기록 2년 2개월 앞당겨 외국인 매출 작년보다 731%↑ 공간 경험의 가치 극대화 주요

파 기록에 주요했다”고 부연했다. 더현대 서울은 연 매출 1조 원 달성의 핵심 동력은 ‘외국인 매출 증대’라고 분석했다. 엔데믹으로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문 ‘필수 코스’로 부상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731.1% 증가했고 올해 1~11월엔 891.7% 상승했다. 이는 올해 현대백화점 전체 외국인 매출 평균 신장률(305.2%)의 3배에 육박한다. 특히 외국인 구매고객 중 20~30대 비중이 72.8%에 달해 ‘글로벌 MZ 성지’임을 입증했다.

◇‘리테일 테라피’ 공간 조성, 영패션 매출이 식품 비중보다 많아

기준에 없던 ‘리테일 테라피 (쇼핑을 통한 힐링)’ 공간 구현도 1조 매출의 비결이다. 전체 영업 면적(8만9100㎡)의 절반



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으로 꾸미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정 설계를 했다. 백화점에서 휴식을 즐기며 오래 머무는 고객들이 늘며 오픈 초기 식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후엔 패션 매출이 늘었다. 또 ‘마뎡킴’, ‘시에’ 등 2030세대가 열광하는 온라인 기반 패션 브랜드의 ‘백화점 1호 매장’을 잇따라 유치, 영패션 중심으로 매출이 가파르게 늘었다. 오픈 첫 해 19.1%였던 식품 비중은 작년 16.5%, 올해 13.2%로 서서히 줄어든 반면, 영패션은 2021년 6.2%에서 2022년 10.3%, 올해 13.9%로 식품 비중을 앞질렀다. 이 같은 영패션 매출 비중은 더현대 서울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전 점포 평균(8.2%)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객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1년 8만 7854원이었던 더현대 서울 객단가는 작년 9만3400원, 올해 10만1904원으로 늘었다. 식품을 제외하면 현대백화점 서울 내 점포 중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에 이어서 번째로 높다.

◇‘K패션 인큐베이터’ 자리매김...외국 기업도 벤치마킹 잇달아

더현대 서울은 K패션 생태계 확장의 새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픈 당시 쿠팡, 디즈니즈네버렛 등 온라인 전문 브랜드를 업계 최초로 입점시키는 등 현재까지 200여 개의 한국 토종 브랜드가 더현대 서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출했다. 이 덕분에 올해 패션 매출은 개점 첫해보다 113.2% 급증, 오픈 이래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인 23.1%를 기록했다. 해외기업들도 노후유를 배우기 위해 찾고 있다. 7월 시작한 외국인 대상 ‘더현대 서울 벤치마킹 투어프로그램’에는 루미네·한큐(일본), 엘팔라시오데이아(멕시코), 시암 파라곤(태국) 등 여러 백화점·쇼핑몰 관계자가 참여했다. 네슬레(스위스), 제너럴밀스(미국), 포르쉐(독일) 등도 참여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루이비통이 연말께 오픈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해 개발한 더현대 서울 단독 매장 등 다양한 MD 모델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MZ 핫플레이스이자 럭셔리리의 새 지평을 여는 공간으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kyy0907@

식품업계도 젊은 피 수혈... 3세 경영 본격화

〈90년대 생〉

농심 신상열 구매업무 진두지휘 삼양라운드 전병우는 전략총괄

주요 식품기업의 1990년대생 오너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승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핵심 부서를 이끌며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최근 구매실에 구매전략팀을 신설, 신상열 상무를 팀장으로 세웠다. 구매실장인 신상무가 구매전략팀 팀장까지 겸직하며 사실상 구매전반을 총괄하게 된 것이다.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무는 1993년생으로, 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2019년 3월 농심에 경영기획팀 사원으로 입사했다. 그 후 1년만인 2020년 대리로 승진했고 이듬해 부장으로 또 승진했다. 같은 해 11월엔 구매담당 임원(상무)로 또 승진, 원자재 수급 업무를 총괄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다만 사내 안팎에서 주목했던 신상무의 승진은 올해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신 회장이 장남이 관할하는 구매실에 구매전략팀을 신설, 당장의 승진보다는 부서의 역할을 확대해 신상무의 경영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남의 권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주요 식품사 오너 3세 프로필

※ 출처: 각 사

	농심	삼양라운드스퀘어	오뚜기
이름	신상열	전병우	함윤식
나이	1993년생	1994년생	1991년생
직책	구매 담당 상무	전략총괄(임원)	경영관리 부문 차장

지배적이다. 신상무의 최대미션은 ‘원자재 수급관리’를 통한 영업이익률 증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심화하고 있어, 그가 어떤 복안을 낼지 주목된다. 또 다른 90년대생 오너 3세인 삼양라운드스퀘어(옛삼양식품그룹)의 전병우 상무도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 상무는 1994년생으로 삼양식품 창업자인 고(故) 전준용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의 장남이다. 전 상무는 신상무와 같은 대학인 컬럼비아대를 졸업했다. 2019년 삼양식품 해외전략본부 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2021년 삼양식품 전략기획부문을 거쳐 전략운영본부장에 올랐다. 10월 임원인사에서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삼양식품 신사업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콘텐츠업체인 삼양애니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전 상무가 경영 전면

에 나서면서 삼양식품을 비롯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업계 분석이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장남인 함윤식 씨도 2021년 오뚜기에 입사, 현재 경영관리부문 차장으로 있다. 1991년생인 그는 아직까지 일반에 노출된 바 없다. 하지만 타 식품사 오너 3세 전례에 따라 고속 승진 여부가 주목된다.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함 회장의 장녀이자 함 차장의 여동생 함연지 씨도 조만간 오뚜기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함 회장이 사돈인 김정호씨를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다. 김 부사장은 함연지 씨의 시아버지다. 오뚜기 관계자는 “현재 오너 3세에 대한 임원인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함연지 씨도 남편이 유학 중이라, 함께 미국에 간 것으로 안다. 경영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김건호 ‘차별화 승부사’ 제 역할 할까

100주년 앞둔 삼양그룹

미래 위한 ‘삼양 제대로 알리기’ 나서

삼양그룹이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인지도 개선 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라면 생산이 주력인 삼양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브랜드 강화가 필요한 데 해결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너가 4세 김건호(사진) 삼양홀딩스 경영총괄사무가 최근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그가 그룹의 인지도 개선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1924년 창업한 삼양그룹은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삼양그룹은 김운 삼양홀딩스 회장의 조부인 고(故) 김연수 명예회장이 설립했다. 100주년을 맞아 삼양그룹은 기존 식품소재, 의약·바이오에서 나아가 차세대 대체육,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반도체·2차전지 소재까지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사업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김 회장은 최근 임원인사에서 장남인 사장을 내세워 고부가가치사업 확대에 고삐를 당겼다. 1983년생 김 사장의 직책은 전략총괄로, 그룹의 성장 전략과 재무를 책임진다. 김 사장이 신설된 전략총괄 최고책임자로서, 100년 기업의 미래 경영



전략을 짜는 중책을 맡은 셈이다. 삼양그룹은 100주년을 맞아 핵심 비전인 ‘글로벌 스페셜티(고부가가치) 기업’

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가 최대 걸림돌이다. 일반인들은 ‘삼양’하면,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을 떠올리기 쉽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K콘텐츠 붐에 힘입어 불닭볶음면은 K매운라면의 대명사로, 삼양식품 또한 글로벌 인지도가 상당하다. 삼양그룹은 기업 간 거래(B2B)를 주로 하는 소재 기업이지만,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선 삼양식품과 차별화한 인지도 확대 전략이 필요한 때다. ‘라면회사’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 차원 활동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

100주년에 맞춰 사실상 책임경영 전면으로 나선 만큼 ‘삼양 제대로 알리기’는 미래 사업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스페셜티와 글로벌 중심으로 고도화해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각 사업 영역에서 사명부터 제대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j42@

다우니 ‘추가행금 제로 세탁세제’ 출시... 잔여물 우려 ‘0’

자원 절약·소비자 향기 요구 담아

한국P&G는 최근 추가 행금 과정 없이도 깔끔한 세탁이 가능한 ‘다우니 추가행금 제로 세탁세제’를 출시했다. 3일 한국 P&G가 지난해 9월 9일부터 23일까지 20~65세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중 약 67%가 세탁기에 기본으로 설정된 행금 횟수 외에 1회 이상의 추가행금을 한다고 답했다. 이는 세탁 후에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세제 잔여물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우니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추가행금

과정 없이도 깔끔한 세탁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였다. ‘나노 클리닝 파워’로 미세한 입자가 섬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작은 오염물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제의 거품 발생량 역시 획기적으로 줄여 빨래 행금 횟수를 추가하지 않아도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설계했다. 문현호 기자 m2h@

세계 초일류 기술

BIG BANG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합정~동대문역 달린다

오늘부터 운행... 총 9.8km 구간
밤 11시30분~오전 5시10분
무료 이용후 내년 상반기 유료화
市 외곽 장거리 노선 편성 계획

세계 최초로 서울 도심에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합정역부터 신촌, 동대문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심야 시간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서울시는 4일부터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심야 A21)의 정기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를 순환하게 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버스는현대차 일렉시



티를 개조한 것으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자율주행버스 2대다. 서울시는 예비차 1대를 더 두고 기존 운행차량이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 요일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운행하며, 늦은 밤인 오후 11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해 다음 날 새벽 5시 10분 운행이 종료된다. 1대는 합

정역, 1대는 동대문역에서 각각 출발해 70분 간격(총 5회 왕복 순환)으로 순환 운행한다.

버스는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로 중앙에 위치한 총 40곳(편도 20곳)의 중앙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심야자율주행버스가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각이 제공되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등에서도 ‘심야 A2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각이 안내된다.

심야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로 타고 후 탑승하면 된다. 시는 당분간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내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금은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그간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운행은 세계 최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심야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

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곳의 교통신호 개방 인프라를 설치해 신호 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 검증을 한 바 있다.

내년에는 우선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총 13.2km)을 연장하고, 시 외곽~도심~시 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운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채빈 기자 chaebi@

“결근·허위 연장근무했어도... 해고는 과하다”

문화원, 직원 상대 소송서 패소
법원 “반성할 기회 먼저 줘야”

무단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주상하이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5월 해고됐다. A 씨가 2019년 근무한 242일 중 168일이나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했고,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969시간의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정하게 보상휴가를 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문화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문화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충남지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중앙노동위의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근무 상황과 허위 연장근무 신청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 담당한 업무 중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근태 불량 등으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를 A 씨에게 돌리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가장 중한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박꽃 기자 pgot@



지승스님 영결식 지난달 29일 임직한 자승 스님의 영결식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 신도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서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이 끝난 뒤 스님의 법구가 다비식이 엄수되는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로 이운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랜섬웨어 유포해 26억 갈취... 檢, 범죄수익 환수 검토

데이터 복구업체, 해커와 공모
730명에 랜섬웨어 침투 암호화
복구 독점...공갈협박의 구속기소

해커 조직과 짜고 피해자들로부터 26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일당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커 조직이 아닌 데이터 복구업체 직원을 공갈죄로 기소한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이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일당이 피해자 730명로부터 빼돌린 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일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청구 여부 역시 차차 결

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 규모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8년부터 4년간 ‘매그니메트’라는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해커조직과 국내 데이터복구업체가 공모한 것이다. 해커조직은 피해자들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모든 파일을 암호화했는데, 데이터 복구업체는 이렇게 암호화된 파일 복구를 대행하는 업무를 독점했다. 박 씨와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복구비용 명목으로 총 26억6489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 공범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랜섬웨어를 유포한 조직을 찾기 위해서는 랜섬웨어가 유입된 경로를 역추적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기술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코인’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해당 코인에 들어간 전자지갑 번호가 북한 해킹 조직

의 전자지갑 번호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이 랜섬웨어를 유포한 조직이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배후나 뿌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데이터 복구업체는 수사기관이 찾아냈지만 사건의 몸통과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15일 시작되지만 사건 선고 결과나 형량에 대해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그간 개인 해커들의 해킹 사건은 잦았지만 해커조직과 데이터복구업체가 원격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공갈해 적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스스로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이번주 내내 아침 영하권... 6일 눈·비

낮엔 평년수준... 미세먼지 ‘나쁨’

연일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일인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기록하겠고, 낮 시간대에는 기온이 다소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면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이번 주 내내 아침 출근 시간대에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월요일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5일인 화요일과 6일인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낀 가운데 기온이 오르겠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수요일인 6일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강원영서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목요일과 금요일인 7~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아침 기온은 -4~6도, 낮 기온은 4~13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4~7일까지는 전국이 ‘나쁨’, 이후 8~10일에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하권 추위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라며 “도로 결빙이나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www.dongsung-pharm.com


동성제약

생활속 해충 박멸과 빈대포비아까지

원샷, 원킬!

4주 연속
살충효과



빈대? 비오킬로 한방에!

구석 구석, 우리 집 속 보이지 않는 곳 해충까지 잡아주는 살충제-비오킬

비오킬은 선진국형 살충제로 특수 코팅된 원료로 햇빛과 높은 온도, 습도에 안정적이며, 분사 후에도 약 4주 동안 살충효과가 지속됩니다. 비오킬의 주성분인 페메트린은 포유류 동물에게는 독성이 적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에 싹~ 빈대, 바퀴벌레, 파리, 모기, 벼룩, 진드기, 쥐미, 좀벌레, 개미의 구제

물
99%

프레온
가스 NO

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그라운드220’ 문 연다

충전·성장·영감 콘셉트로
Z세대 기획 프로그램부터
전문가에 취미 배우기까지
15일 서울 양평동에 개관
유명인 출연 오프닝이벤트
토크·뮤직콘서트 참가 접수



LG전자가 오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새로 오픈하는 Z세대 경험공간 ‘그라운드220’ 조감도. 사진제공 LG전자



‘그라운드220’ 오프닝 이벤트에 참여하는 댄서 최효진(왼쪽부터), 래퍼 래원, 싱어송라이터 조지. 사진출처 개인SNS

LG전자가 Z세대와 직접 만나는 공간을 연다. 잠재 고객인 Z세대와 소통하며 LG전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일상을 제안한다는 목표다. LG전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Z세대의 새로운 경험공간 ‘그라운드220’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정식 오픈에 맞춰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토크 및 뮤직콘서트 등도 열린다.

그라운드220은 삶의 단단한 터전이 된다는 의미의 ‘그라운드’와 가전제품의 연결고리 220볼트의 ‘220’을 조합한 이름이다. 그라운드220은 무엇보다 양평 우수지 생태공원, 문래창작촌 등 자연과 예술이 인접한 입지로 충전·성장·영감이라는 공간의 콘셉트를 극대화했다. LG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차분하고 여유롭게 경험하며 LG전자와 함께 쉬고, 배우고, 나만

의 일상을 정리하는 장소로 기획됐다.

회원 가입 후 안내 데스크에서 체크인만 하면 어떤 제품든 대여해 원하는 장소에서 편한 자세로 경험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한 자리에서만 제품을 만져볼 수 있게 하거나, 가격과 스펙 위주의 제품 설명이 비치된 일반적인 매장·체험존과는 다른 고객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의도다.

그라운드220 내부는 △제품과 함께하는 일상을 자유롭게 경험하는 ‘루틴 그라운드’ △제품을 활용한 클래스로 취미와 생활을 탐구하는 ‘커뮤니티 그라운드’ △신제품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팝업 그라운드’ 등으로 구성된다. 루틴 그라운드에서는 LG전자의 Z세대 경험 자문단

LG크루가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브리즈·시네빔 등을 활용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마인드피스’, 틱온·퓨리케어 정수기로 따뜻한 메리골드 차를 즐기는 ‘헬시’ 등 12개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운영된다.

커뮤니티 그라운드는 전문가에게 매달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달에는 니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다와에게 스탠바이미로 겨울 뜨개질 배우기, 요가 명상 전문가 진영이가 르쳐주는 브리즈로 명상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건물 외관 아트웍(artwork)은 생동감 있는 색과 환상적인 패턴으로 알려진 영국 런던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린다 바리츠키가 디자인했다.

LG전자는 15일 정식 오픈에 맞춰 이이공 토크콘서트·뮤직콘서트 등 오프닝 이벤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에는 유튜브 겸 디자이너 이연·댄서 최효진·오몰리데이박신후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뮤직콘서트에는 싱어송라이터 조지, 래퍼 래원·김승민, DJ 프로듀서 코스믹보이 등이 출연한다. 4일부터 LG전자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LG전자 CX센터 구지영 CX전략담당 상무는 “그라운드220은 LG전자만의 제품과 경험으로 Z세대 고객과 소통하며 새로운 고객경험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한재필 영업부장 ‘판매거장’
상용차 판매 2500대…역대 5번째



현대차는 인천트럭지점 한재필<사진> 영업부장이 상용차 ‘판매거장’에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상용차 판매거장은 상용차 누계 판매 2500대를 돌파한 우수 영업사원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한 부장은 1990년 입사 후 33년 만에 역대 5번째 상용차 판매거장에 등극했다. 그는 자신만의 판매비결로 “현대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모든 고객을 매 순간 진심으로 대한 것”을 꼽았다.

현대차 판매 명예 포상 제도는 상용부문의 경우 △1000대 달성 시 ‘판매장인’ △1500대는 ‘판매명장’ △2000대는 ‘판매명인’ △2500대는 ‘판매거장’이라는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

강문정 기자 kangmj@·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송광용 중앙대 물리학과 교수 美 광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

중앙대는 송광용<사진> 물리학과 교수가 미국광학회(OPTICA) 석학회원인 펠로우(Fellow)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미국 광학회는 1916년 설립돼 현재 80여 개국 1만8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 중인 학회다. 빛에 관한 학문인 광학과 포토닉스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광학회는 매년 전체 회원 가운데 광학·포토닉스 분야 발전에 탁월한 공을 세운 극소수 인원을 선별해 펠로우를 수여한다. 송 교수는 광신호 처리와 광섬유 센서에 응용되는 ‘브릴루앙 느린 빛’과 ‘브릴루앙 동적 격자’ 분야를 개척한 성과를 이번 펠로우 선정을 통해 인정받았다.

정유정 기자 oiljung@



푸본현대생명, 소외계층에 방한물품



푸본현대생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

푸본현대생명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해 방한물품과 떡국 재료를 마련해 영등포구에 사는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20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사진제공 푸본현대생명

韓 산업부·日 경산성 축구 교류전 5년 만에 재개

양국 장관 오찬 형식 간담회 산업·통상·에너지협력 논의

한국과 일본의 실물경제 주무 부처가 5년 만에 축구 교류전을 재개하는 등 경제 교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축구 동호회는 2일 일본 오사카에서 축구 교류전을 열었다. 2018년 제주도에서 마지막 경기가 열린 후로 5년 만에 재개된 행사다.

양 부처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 개최를 기념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두 나라를 오가며 친선 축구 경기를 열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양국 관계 경색으로 2019년부터 교류전이 중단됐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이후 양국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분위



방문규(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세 번째) 일본 경제산업성이 2일 일본 오사카 마이스마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동호회 교류전 후 양팀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기가 급반전됐으며, 이번 실물경제 주무 부처의 축구 교류전 재개는 한·일 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는 양국 장관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날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오찬 형식의 간담회를 하고, 양부처 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한일 간 산업, 통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급망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부처는 내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대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 분야에서도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편, 축구 교류전 결과는 산업부가 2:1로 패배했지만, 종합전적은 8승 2무 7패로 산업부가 우세하다. 양 부처는 내년 한국에서 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0년대 한국영화 이끈 김수용 감독 별세

1960년대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갯마을’ 등을 만들며 한국 영화의 거장으로 손꼽혔던 김수용 감독이 3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영화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노환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1929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학창 시절이던 1945년 해방 직후 3·1 운동에 관한 연극을 연출하는 등 극예술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다. 고인은 6·25 전쟁 때 통역장교로 복무한 뒤 정전 이후 국방부 정훈국 영화과에 배치되면서 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김 감독은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1958년 ‘궁치가’로 정식 데뷔한 고인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 (1965), ‘갯마을’ (1965)을 비롯해 ‘안개’ (1967), ‘산불’ (1967) 등의 작품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1960년대 최고의 흥행작으로 꼽히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당시 대만 등으로 수출되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누렸다. 고인은 데뷔 이후 1999년 ‘침향’에 이르기까지 40년간 109편의 영화를 연출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진행된다. 고인의 문하생이라고 불리는 정지영 감독과 배우 안성기, 양윤호 영화인총연합회 회장 등이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후 1시다.

김채빈 기자 chaebi@

부음

美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을 지낸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2일 (현지 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오코너 전 대법관이 별세했다”며 “사인은 진행성 치매 관련 합병증”이라고 발표했다.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고인은 로널드 레이건 정권 때인 198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에 올랐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면서 “공정성과 지적 능력, 공공선에 대한 헌신이라는 특징을 가진 진정 사제절을

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재임 기간 낙태권과 소수인종 보호, 차별 금지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중도 성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에서 특히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고 그가 머무는 동안 연방대법원은 ‘오코너 법원’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후 치매를 앓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2006년 대법원에서 물러났다. 그랬던 고인은 2018년 자신이 치매 초기 단계 진단을 받았다고 세상에 알렸다. 그는 “치매를 앓으며 보낼 내 인생 마지막 장은 힘들겠지만, 내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코너는 미국의 아이콘이었다”며 “모든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품위와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존경했다”며 애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임종철(전 경찰공무원) 씨 별세, 백평화씨 남편상, 임은경(구리꿈나무치과 의원 원장)·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씨 부친상, 홍승재(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진료과장) 씨 장인상, 손해진 씨 시부상 = 1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4일 낮 12시, 02-958-9721

▲이덕광 씨 별세, 유홍련 씨 남편상, 이영호(현대건설 홍보실장)·영환 씨 부친상, 박나연·이유미 씨 시부상 = 2일,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30분, 051-240-7161

▲최의평 씨 별세, 최유란·유정·유경·유진 씨 부친상, 박현웅·조오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태오(효진가족약품 대표이사) 씨 장인상 = 2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장공실, 발인 5일 오전 8시 20분, 062-250-4455

마감 후



조 남 호
중소중견부 부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늘었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10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1월 수출도 늘면서 회복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년 가량의 침체 끝에 보이는 반등이라 고무적이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따른 내수 부진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2.6%로 높였다. 내년 국내 경기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낙폭은 2.9p로 더 벌어진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다수 업종에서 전망치가 악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든 여러 요인 중에서도 내수부진이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 내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단비가 될 소비 진작 행사가 열린다.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동행축제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2020년 동행세일로 시작된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다. 매년 하반기 연 1회 열리던 것이 작년부터 2회, 올해는 5월 봄빛, 9월 황금빛, 12월 눈꽃까지

中企 시름 달래줄 동행축제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소비와 내수 회복 모멘텀 약화로 기존 전망치(2.2%)를 소폭 밑돌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관련 지표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한은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7월 103.2, 8월 103.1, 9월 99.7, 10월 98.1에 이어 4개월째 하락한 수치다. 국내 경기의 불투명한 상황은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더 큰 한파로 다가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1.9p 떨어진 78.8로 집계돼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세 차례로 확대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연말연시 수요가 많은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 1만 8000여 개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 한도도 30만 원 상향한다. 올해 동행축제 총매출 목표는 3조 원으로 정했는데 앞서 두 번의 축제를 통해 각각 1조 1934억 원, 1조 7135억 원 등 총 2조 9069억 원의 매출을 올려 목표치에 근접했다. 이에 눈꽃 축제에선 1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4조 원을 채운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기존 축제들과 달리 ‘온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 국민이 참여해 올린 성과를 겨울 한파에 어려움이 클 소외된 이웃과 나누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spdran@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논현로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독재자’라고 불렸다. 이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였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의 멕시코 수출을 규제하기로 동의했고,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마약 유통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중국은 2016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합의를 했지만,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자율무기 체계와 핵무기와 관련해 인공지능 사용을 제한하

APEC서 소통 채널 복원 ‘진일보’ 관계개선 못했지만 파국회피 확인 ‘경쟁 속 대화’ 정착시킬지가 관건

는 논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AI의 군사적 이용을 둘러싸고 무인기 공격이나 핵무기 관리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향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군사용 AI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또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를 거부했다. 그리고 중국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 무기, 감시장비, AI 시스템 등을

개발하려는 중국은 미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종합하면,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상존하는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화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즉 양국은 긴장의 ‘한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번 만남은 양국 간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통 채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기대해 볼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다. 서로를 경쟁하는 관계로 인정하되 대화의 끈은 놓지 말자는 게 이번 미중 만남의 성과다. ‘경쟁 속 대화’가 뉴노멀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물론 한 번의 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기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고, 상호 간 신뢰는 너무 약하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은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복잡하다. 이번 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큰 진전은 없었지만,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주요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의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APEC 참가국들은 양국 관계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미중 간 경제 분리와 군사 경쟁 심화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긴장된 미중 관계는 전쟁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방해한다. APEC에는 모두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 국가들은 미중이 관계 개선의 기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제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토머스 칼라일 명언

“연설은 위대하지만, 침묵은 더욱 위대하다.” 스코틀랜드의 수필가, 역사학자, 철학자다. 역사, 비판적 에세이, 사회 논평, 전기, 소설, 그리고 시의 장르에 걸쳐 30권을 쓴 그는 19세기에 ‘영문학의 의심할 여지없는 우두머리’ 칭호를 들었다. 그의 혁신적인 문체는 포스트모던 문학의 기법을 기대하면서 빅토리아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95~1881.

☆ 고사성어 / 구화지문(口禍之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말. 전당서(全唐書) 설시(舌詩) 편 후당(後唐) 때 재상을 지낸 풍도(馮道)의 글에 나온다. “입은 곧 재앙의 문이요, 혀는 곧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 그는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 등 여러 왕조에서 벼슬을 지내며 그

동란의 시기에 73세의 장수를 누리는 동안 처신에 많은 경륜을 쌓은 사람으로 이런 처세관(處世觀)을 남겼다.

☆ 시사상식 / 임비(Yimby)

‘Yes in my backyard’의 줄임말.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반기는 움직임을 뜻하는 용어. 자신이 사는 지역에 특정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반대말. 2011년 미국 수학 교사인 소냐 트라우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을 잡기 위해 지역 정부에 주택 개발 확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시작된 이 운동은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어리굴젓

‘간한 굴에 고춧가루를 섞어 얼간으로 삭힌 굴젓.’ 굴은 햇볕을 쬐면 생장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런 굴을 흔히 ‘강굴’이라고 한다. 매운 고춧가루로 주로 양념하는 충남 서산시 간월도 강굴에 ‘얼얼하다’, ‘얼큰하다’라는 맛의 표현을 더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차기 법무장관에 거는 기대

노트북 너머

이수진
사회경제부 기자



야권 주요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당은 한 장관과 검찰을 공격했다. 한 장관에게 ‘견방진 놈’ ‘어린 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야당은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한 장관의 몸값만 올렸다는 평가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정쟁의 대상이 됐다. 물론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익숙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민주당 의원들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고 검찰의 대항마가 된 조국 전 장관도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

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피곤하다. 이른바 ‘정치인 지망생’으로 회자되는 한 장관과 국무위원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날 선 신경전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늘 시끄럽다. 법무부는 형사절차를 바로 세워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정치적 연산에 묻히고 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정치권은 조롱할 뿐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한 장관 총선 출마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장관을 포함한 참모진이 교체될 전망이다. 다음 법무부 수장으로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부디 정치권과 거리가 먼 인물이 오길 바란다. abc123@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다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 +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 놓고 ‘탄핵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 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쪼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돈도 매달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한다. 내 돈으로 차마 저 인간들 밥값은 못 내주겠으니 도로 내나라.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이대로 가면 수백 건의 각종 법안이 폐기돼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이미 지났다. 낯설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은 풍경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없던 차이점이 있다. 논란 뜨면 지지고 뉘는 국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되기 전까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는 지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예산안은 2년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총 638조 7000억 원 규모였던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자. 작년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따라 9월 1일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 회기는 최대 100일, 따라서 12월 9일이 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폐회가 일주일 남은 2일 입장문을 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결과는 어땠을까. 정기국회가 끝나고도 이들이 지난 12월 11일에야 민주당은 갑자기 본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안을 기습 의결했다. 예산안은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거대야당 ‘예산안 외면-탄핵 열풍’

재난안전법 등 민생법안 나몰라라

투표는 행사할때 ‘힘’ 잊지 말아야

데스크 서각

정 일 환
정치경제부장



1년이 흐른 올해 11월 30일 김진표 의장은 다시 입장문을 냈다. 내용은 이렇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다.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튿날 그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은 올해도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미 지났고,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인 게 하루이틀이 아니며 내성이 생긴 유권자들에게는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모두가 아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국민이면 뭘 해도 권력자로 존중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개인의 권력은 행사할 때만 유효한 힘이며, 일개 소시민이 자신의 권력을 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투표’다.

whan@

노무, 특!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최근 게임업계가 혐오 표현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모 회사 홍보용 애니메이션에도 혐오 표현이 등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불안이 번지는 양상이다.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도 빈번하다. 유저들의 항의와 관련자 처벌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회사는 난처한 지경에 처하곤 한다.

이런 배경에서 게임개발업체 X사는 취업규칙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사상, 취향을 강요하거나 타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자 한다. 기업 질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규율할 수 있지만, 사생활 영역의 활동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관계와 무관한 사생활의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적인 영역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

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나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한국은 소멸하는가”… 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사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2070년대 총인구는 4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딜레마를 꼬집은 적색 경고다.

연구원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0.81명)은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은 세계 1위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0명이다. 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은 2021년보다 더 낮아졌다. ‘성장률 0% 이하’ 확률은 더 높아졌다.

한국 저출산 문제는 지구촌도 주목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며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도 인용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을 초토화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전파돼 1353년까지 최대 1억 명 사망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세계 추정인구는 4억 5000만 명 안팎이다. 흑사병은 14세기 총 인구의 근 4분의 1을 줄인 대역병인 것이다. 그

런데도 NYT 칼럼은 우리 인구문제가 흑사병보다 더 위중하다고 했다. 국가 소멸론까지 대두되니 과하다고 반박하기도 어렵다. 입맛이 여간 쓰지 않다.

백약이 무효라지만 그래도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점은 다행이다. 이번 연구원 제안부터 눈여겨볼 일이다. 연구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저출산 원인으로 전제하고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모형을 바탕으로 출산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분석했다. 도시인구집중도, 청년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되면 합계출산율은 최대 0.845명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현재보다는 덜 암담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어떻게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왔는지도 배워야 한다. 유럽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가 아이를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를 전액 환급해주고 방과 후 돌봄,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각종 세입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복잡하다. 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인구 위기는 극복돼야 한다. 국가 소멸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범사회적 대응각성이 필요하다.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덜 수 있어도 길이가 훨씬 보일 것이다.

‘코리아 프리미엄’의 꿈

플라자

김 호 준
前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극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현상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그와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 전류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다. 자석에도 N극과 S극이 있는데, 신기하게 반으로 잘라도 양극은 다시 생긴다. 반대의 극성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고, 상처의 용수철은 스스로 팽팡 튀어 오르게 하는 힘을 품게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도약’ 가능성 내재

이 렌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보자. 정반대 극성인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회를 품고 있다는 뜻이 드러난다. 잠깐 단순 계산만으로 피터팬 같은 꿈을 꿔보자. 지난 10년 내내 세계 40위권에 머물렀던 한국의 주주환원(배당과 자사주 매입) 수준이 10위권이 되고, 현재 20%대의 배당성향이 선진국처럼 40%대까지 향상될 수 있다면?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거버넌스와 ESG의 개선으로 한국 PBR(주가순자산비율·0.9)이 개발도상국 수준(1.6)이나 선진국 수준(2.9)인 2~3배로 상승한다면? 현재 주가지수 2500 대비 엄청난 코리아 프리미엄의 현실까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저평가된 시장을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자.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이르면 2024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소 4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자금 유입과 코스피 지수도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 중인 마중물에 민간 주식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채권시장에서도 꾸준히 노력 중이다. 정부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의 한국 편입을 위해 술한 좌절 속에서도 계속 경주 중이다. WGBI 추종 자금은 약 2조 5000억 달러, 한국 편입 시 국고채 국내 유입자금은 90조원을 예상한다.

그럼 마중물 다음 질문. 한국 회사들의 펌프나 우물 은 생명수를 과연 지속 가능하게 끌어올려 줄 만큼 탄

탄할까? 기업의 현주소는 자산가격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의 가치를 살펴봐야 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능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행히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의 시장 평가는 디스카운트될지언정, 양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의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약한 ESG와 거버넌스 극복해야

여기서 반대 극성, 한국 기업의 비재무적 인프라가 궁극해진다. 펌프나 우물의 재무적 하드웨어는 좋은데, 그 관리 상태는 깨끗한지 식수는 믿을 만한가의 문제다. 세련된 인테리어나 그릇, 양질의 식자재를 갖춘 식당에서 구매 경로와 조리과정은 감춰져 있고, 신선도가 떨어져서 신뢰가 안가는 경우 고객은 발길을 끊게 된다.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정책과 시스템, 지속적인 성과 관리, 이를 투명하고 몇 몇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신뢰의 핵심이다.

주지하듯이, 코리아 덩 디스카운트의 바닥에는 질적 비재무적 요소라고 여겨왔던 기업의 ESG와 거버넌스가 있다. 탄탄한 바닥에는 솟구쳐 오르려는 의지나 목표 여부, 비즈니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려는 효과적인 방법의 모색에 따라 언제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반작용의 힘이 가능성으로 내재되어 있다.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

코리아 프리미엄을 꿈꿔 보자. 간절히, 꾸준히, 생생하게 상상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던가. 부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면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도서관이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남 서산 토성산 맹꽂이 작은도서관 안세영 관장 (56세)

늘 이웃을 위하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도서관을 짓고 싶었어요

비탈길 산자락에 직접 땅을 일구며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을 지어 갔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책장과 의자 하나까지
이곳엔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거의 20여 년 동안 연못과 놀이터, 작은 동물원까지 더해가며
오는 길마저 즐거운 도서관을 만들어 왔어요

책과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좋은 책과 공간으로 채워가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OOK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여섯번째 이야기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KB금융그룹